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退溪·松巖 詩歌의 山水美와 문학교육적 의의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嚴　俊　驛

2020年 8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退溪·松巖 詩歌의 山水美와 문학교육적 의의

指導敎授 孫 五 圭

嚴 俊 驛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6月

嚴俊驛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20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atural Beauty and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oegye·Songam's Poetry

Eom, Jun-yeok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退溪·松巖 詩歌의 山水美와 문학교육적 의의

嚴 俊 驛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孫 五 圭

본 연구는 退溪·松巖 詩歌의 山水美가 담고 있는 自己實現的 가치 지향과 문학교육적 의의를 발굴하고, 이것이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적용하여 지도안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퇴계·송암 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性理學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두 학문이 보편적 理와 명증한 앎이라는 진리를 궁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체의 자기 수양과 자기 비판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이처럼 간학문적 탐구의 결과로 확인된 두 학문의 상보적 관계는 현상학의 의식의 지향성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성리학의 理一分殊의 세계관을 포착하고, 이때 포착된 理一分殊는 다시 주체의 倫理的·道德的 실천 당위가 돼 자아와 세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를 본 연구는 퇴계·송암 시가의 美意識이 함의하고 있는 가치 지향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Ⅱ장 退溪·松巖 漢詩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에서 시적 화자의 美的 감흥은 山水의 形式美와 內容美가 의식의 지향성에 포착·구성되어, 理一分殊의 진리가 이성적·감성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표면화됨을 확인하였다. 즉, 理一分殊를 깨달은 시적 화자의 미적 감흥의 표현은 本然之性 추구 양상을 띠게 되며, 구체적으로 이는 퇴계의 작품에서 '感發融通'으로, 송암의 작품에서 '感發興嘆'을 지향함으로써 주제와 미의식, 시상 전개의 차이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Ⅲ장 退溪·松巖 時調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에서, 「陶山十二曲」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閑居十八曲」의 독특한 詩境은 理一分殊를 체현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를 현상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확인되었다. 그 시경은 구체적으로 「도산십이곡」에서는 유기체적 山水觀, 「한거십팔곡」에서는 자아 인식의 확립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를 위한 시적 화자의 실현 의지는 두 작품에서 산수은거를 통한 道의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두 작품의 시상 전개와 가치 지향적 미의식은 보편적 理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최대로 실현하며 완성하는 상태를 지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Ⅳ장 退溪·松巖 詩歌의 自己實現的 가치 지향과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제재인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활용한 수업 모형과 지도안을 총 3차시로 구안하여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 학습의 실제를 다루었다. 문학이 삶과 인간을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은 학습자의 이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게 되고, 그 사유의 결과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시도하는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주목하는 현 국어과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는 고전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당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의미하고 생명력 가득한 지혜로서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로서 퇴계·송암 시가의 문학교육적 의의란 성리학과 현상학이 지향하는 자기 경계와 자기 수양을 통한 자기실현적 가치의 학습에 있고, 그들의 작품에는 이러한 가치가 독특한 미의식과 시경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

Ⅰ. 序論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및 내용 ····· 13

Ⅱ. 退溪·松巖 漢詩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 ····· 19
1. 理一分殊와 산수경물의 形式美 ····· 19
2. 理一의 理와 가치 지향의 內容美 ····· 22
3. 美的 감흥의 표현과 本然之性의 추구 ····· 26

Ⅲ. 退溪·松巖 時調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 ····· 32
1.「陶山十二曲」에 나타난 山水觀 ····· 32
2.「閑居十八曲」에 나타난 자아 인식 ····· 42
3. 산수은거와 道의 실천 ····· 54

Ⅳ. 退溪·松巖 詩歌의 自己實現的 가치 지향과 문학교육 ····· 56
1. 문학 제재로서의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 ····· 56
2.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 ····· 59
3.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지도안 구안 ····· 66

Ⅴ. 結論 ····· 79

<참고문헌> ····· 82
<Abstract> ····· 8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序論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退溪·松巖 詩歌의 학문적 배경인 性理學을 現象學과의 相補的·共通的 지향 관계로 접근·이해함으로써, 두 작가의 시가가 노래하는 山水美의 美的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 작업은 구체적으로 두 작가의 漢詩 및 詩調가 노래하는 理一分殊의 山水觀을 구성하는 데 작용한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에 주목함으로써, 근원적이고 명증한 앎을 추구하며 주체의 실천적 당위를 강화하는, 理性的·感性的 의미차원을 충족한 山水美의 현상학적 형상화와 그 가치 지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의 제재인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와 세계와의 조화'라는 文學史의 보편적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그 답이란 자신과 타자, 세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自己를 실현한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美的 체험을 말한다. 이는 곧 퇴계·송암 시가의 학습 당위이자 문학교육적 의의로 요약되며,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학습 목표로 삼아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공존하며 함께 哲學하는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활용한 수업 설계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문학은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1] 따라서 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양분하였을 때, 이 둘은 시·공간적 배경, 지배 이데올로기 등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특수한 체험과 상상력이 담긴 개인과 공동체의 美意識을 언어 예술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2015, p.1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현재의 학습자가 고전시가 학습의 당위와 가치를 이해·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고전시가가 학습자에게 자신과 무관한 과거의 유물 정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충분한 학습 동기를 제공받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학습 효과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전시가 학습의 당위성을 학생 수준에서 제시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再構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선조의 체험과 상상력의 기반이 된 당대의 시·공간적 배경,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1차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 의의를 주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대행은 고전시가 학습의 당위를 '언어'에서 찾고,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것과 "인간이 불가피하게 삼라만상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고전시가가 "인문(人文, humanities)"이자 "사람의 실상"을 이해하게 해줄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2)]

김대행의 견해처럼 고전시가가 '말'로서 개인이 살아온 삶 전체이자 모든 것이며 그 실상을 온전히 드러낸 가치 있는 자료라면, 왜 현재의 우리는 고전시가 학습을 통해 나와 상관없는 과거와 타인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退溪·松巖 詩歌의 현재적 의의를 탐색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조선조 고전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性理學을 現象學과 비교·대조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학문이 보편적 理와 명증한 앎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성리학이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상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현재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퇴계·송암 시가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이를 학습자 수준에서 감상·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방안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두 작가의 작품이 담고 있는 山水美는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에서 포착된 美的 감흥이 문학적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서, 자기실현적 가치를 지향한다.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러한 미적 지향과 가치를 발견하고 탐구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숙의의 과정을 통해, 자기 수준의 이해를 심화·확장 시키는 소통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감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

2) 김대행,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지표」, 『한국시가연구』 제38집, 한국시가학회, 2015, pp.9-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상호 대립 관계로 보였던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퇴계·송암 시가의 산수미를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학습자가 감상·체험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구안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중 먼저 고전문학 또는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위상과 연구 목표, 지향점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정희, 김대행, 육민수를 들 수 있다.

고정희는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3]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다문화사회, 통일, 한국어교육, 세계문학"이라는 고전문학의 미래 환경 속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지위는 흔들리고 있지만,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중정체성, 동시대성"을 강조하고, "비형식교육의 지원"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이 갖는 다중적 정체성에 대해 고전문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다문화 문식성을 통해 고전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대행은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지표」[4]에서 고전시가가 인간의 삼라만상을 담은 긴장되고 응축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언어'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지식, 수행, 경험, 태도"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전시가는 교육 이전에 일정한 삶의 방식, 즉 '문화'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인문학적 지표로 교육·연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고전시가 연구의 핵심에 언어를

3) 고정희,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pp.131-162.
4) 김대행, 앞의 논문. pp.7-2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두고, “지식, 수행, 경험, 태도”의 네 가지 요소의 복합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고전시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육민수는 「한국고전시가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기대지평」[5]에서 『한국시가연구』에 수록된 특집 기획 연구 논문들을 “장르론, 예술사와의 관련 양상, 주제사적 탐구,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모색, 동아시아적 지평, 근대성, 세계문학의 패러다임과 한국 고전시가의 보편적 가치” 등으로 나눠 주요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전시가가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 그 위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래를 통한 세계와의 동일성 회복, 자연스러움의 미학에 대한 추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시의 특징인 ‘낯설게 하기’로 비롯되는 ‘동일성의 해체’를 고전시가의 “자연스러움의 미학”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고전시가의 연구목표와 지향점, 위상, 가치 등은 결국 시대와 세대,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적 시각을 읽어볼 수 있다.

한편,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시가 수업 현황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 작품 수록 양상과 학습활동의 문제 등을 다룬 연구들도 있었다. 신명녀는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시조 수용 양상 연구」[6]에서 고시조 수록 현황과 특징을 밝히면서, 학습활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육내용의 적정양과 학습활동의 적절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시조 제재 수록 및 학습자 중심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영옥은 「고등학교 고전 교육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7]에서 고전 교육이 ‘고전문학 교육’에 편향돼 있음을 지적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나마 문학, 비문학 간 비율이 편향되지 않은 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전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고전 교육 교사 교육과 양성, 교과서의 제작을 제안하였다.

---

5) 육민수, 「한국고전시가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기대지평」,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pp.103-130.
6) 신명녀,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시조 수용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9.
7) 정영옥, 「고등학교 고전 교육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의 두 선행 연구는 효과적인 고전 교육을 위해 교육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교육 활동 장면에서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고전시가 교육의 교수·학습 수준에서의 논의를 전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고은은 「문·이과 통합 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 방안 연구 : 과학과의 통합을 중심으로」[8]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인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고전시가' 교육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고전시가 교육 방식인 분과학습과 백과사전식의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문학'과 '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작품의 분석과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류연석은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연구」[9]에서 시조 경험을 위한 내러티브 구성을 '왜 이 시조를 짓게 되었는가'와 관련, 시조 텍스트 세계를 펼치는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시조 경험이 "학습자-현재 층위"와 "작가-과거 층위"로 나뉘는 만큼 이를 반영해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것 보고, 시조 경험의 단계를 "핵심사건 생성과 텍스트의 경험 질료화, 내러티브 구체화와 경험의 맥락 형성, 내러티브 쓰기, 경험 수행과 효과 획득"으로 정리하였다.

이 두 선행 연구에서는 고전시가 교육 방안으로 '문학과 과학', '시조와 내러티브'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분석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각 과학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가 작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시조 자체가 내러티브로 전환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작품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고전시가 교육에서 단순히 시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삶에서 현재적 관점의 효용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김상진은 「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10]에서 「陶山十二曲跋」, 「漁父歌九章幷序」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학이 지니는 심리적 효용에 대해 서술한다.

---

8) 고은, 「문·이과 통합 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 방안 연구 : 과학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7.
9) 류연석, 「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8.
10) 김상진, 「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 pp.41-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閑居十八曲」의 “서정성, 시의 리듬과 반복, 강호시조로서의 갈등 해소”와 같은 장르적 특성이 문학치료에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치료의 과정을 “표현 및 진단하기, 해소단계, 회복단계”로 구성하였다.

서명희는 「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11]에서 조선 중기 시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중시하는 시교 전통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이해 교육과 경험 교육으로 나누었다. 「陶山十二曲」과 「高山九曲歌」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과거 典範의 내면화를 통해 현재 학습자의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수엽은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 - 「처용가」를 중심으로」[12]에서 고전시가의 ‘확장된 자기이해’를 형성하는 원리의 한 방안으로, 고전시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제안하였다. 현재적 재맥락화는 텍스트와 학습자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심층적 맥락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재 삶의 표층적 맥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앞서 확인한 고전시가 교육의 연구목표와 지향, 가치 등의 미래 지평을 제안했던 연구들처럼, ‘인간의 보편적 삶’ 속에서 고전시가 교육의 현재적 효용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잇는 자기 이해와 경험, 심리적 효용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16세기 고전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성리학의 현재적 의의를 발견하고자, 問學問的 태도를 가진 기타 연구도 다루고자 한다. 조선 중기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과 다양한 철학적 관점의 접점을 다룬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영화는 「주자와 양명의 심론 연구 - 심의 현상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13]에서 주자와 양명의 心論이 지향하는 天人合一의 경지는 후설이 현상학에서 말하는 心의 志向性 개념으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후설의 현상학이 갖는 인식론적 한계는 주자와 양명의 心論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식 추구,

11) 서명희, 「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3.
12) 오수엽,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 - 「처용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3집, 2018, pp.111-139.
13) 권영화, 「주자와 양명의 심론 연구 - 심의 현상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곧 존재론과 가치론의 일치·실천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心에 대한 동·서양 철학의 종합적 접목은 인간의 본성인 이성과 감성 모두를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인간이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합리적·도덕적·실천적 개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명환은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 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14]에서 빌리 브란트의 안보에 관한 사유체계는 성리학 사상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천인합일의 세계관에서 음양오행의 변증법적 상호작용과 조화작용을 통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러한 순환과 반복이 현대의 구성주의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은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정체성, 이해관계가 새롭게 구성·지속되는 것과 관련된다.

유권종은 「儒敎的 成就에 관한 現象學的 이해를 위한 시론 - 爲己之學的 성취의 실질에 관한 접근법」[15]에서 유학 연구를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유학에서 修身으로 인한 지각 체험은 학문적 방법의 기초가 되고 유학자들은 이 의식상의 지각 체험을 진술로 많이 남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의식의 지향성과 구조를 '사상 그대로' 바라보는 현상학적 관점의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동양철학이자 고전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성리학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간학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연구는 과거의 사유체계를 이해하는 데 현재적 관점 적용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고전의 현재적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대 사회의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 방안으로 요약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퇴계와 송암의 漢詩 작품을 대상으로 두 작가의 산수관과 미의식의 단면을 확인한 후, 이것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陶山十二曲」과 「

14) 노명환,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 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 『역사학연구』 제65집, 호남사학회, 2017, pp.205-243.
15) 유권종, 「儒敎的 成就에 관한 現象學的 이해를 위한 시론 - 爲己之學的 성취의 실질에 관한 접근법」, 『철학탐구』 제4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6, pp.35-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閑居十八曲」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두 작품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민지는 「退溪 <陶山十二曲>의 性情美學 硏究」[16]에서 퇴계 『聖學十圖』의 「心統性情圖」를 분석하고 그의 心學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의 성정미학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퇴계의 심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선하며, 그 자발성까지 인정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퇴계는 이러한 철학을 담아 「도산십이곡」의 자연을 통해 이치를 매개로 한 인간 마음의 본래성을 회복하고, 학문에 열중하여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가 곧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이라고 보고, 「도산십이곡」의 미적 가치를 퇴계의 심학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퇴계의 심학에 담긴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을 효용론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그 미학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박정민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연구」[17]에서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두 작품의 특성이 개별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 사상과 세계관의 차이는 언어표현, 주제, 함축사상의 세 측면에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그 양상은 고정불변의 진리를 학습 대상으로 삼고 이를 생활의 중심으로 두는 삶(退溪)과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진리를 발견하여 그 세계의 가치를 즐기는 삶(이이)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밝혔다.

손오규는 「陶山十二曲의 山水美」[18]에서 퇴계의 심학을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에 형상화된 山水美를 분석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자연은 前六曲 言志에서 自然合一을 통한 세계적 자연을 자아의 本然之性으로 종속시킴으로써 표현되는 泉石膏肓으로 대표된다. 또한 後六曲 言學에서의 자연은 往來風流로 대표되는데, 이는 퇴계의 주체적 자연 속에서 세속적 명리를 초월하고 爲己之學하여 道心을 발휘하는 즐거움(樂)의 생활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산수미는 자연합

16) 김민지, 「退溪 <陶山十二曲>의 性情美學 硏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2.
17) 박정민,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18) 손오규, 「陶山十二曲의 山水美」, 『退溪學論叢』 제11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05, pp.194-2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에서 비롯된, 산수경물의 자연지성을 본연지성인 마음(心)으로 체득하여 구축한 퇴계의 독창적인 미적 경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퇴계의 시가에 반영된 작가의 독창적인 철학적 사유체계를 미적 가치로 전환하여, 작품 분석에 적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작품의 해석에 적용된 철학적·윤리적 사유들이 전범으로서의 실천적 당위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작품의 미학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기옥은 「陶山十二曲의 재해석」[19]에서 「도산십이곡」의 문학성 해명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 특히 철학적 담론이 주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전시의 해석에는 '텍스트'와 '텍스트 상황'이 중요한 정보임을 밝힌다. 따라서 전육곡 언지는 물러남의 길을 택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느끼는 개인적 감화의 뜻을 노래하고, 후육곡 언학은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려는 자신의 뜻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고전시가의 언어가 '경험의 언어'인 점을 감안하여 고전시의 해석에 '텍스트 상황'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시의 해석에 드러나는 개인의 생생한 경험과 내면세계에 주목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예술성(문학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황병익은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20]와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Ⅱ」[21]에서 「陶山十二曲」의 해석이 퇴계의 사상과 연관된 추상적 풀이로 거의 한결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여기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주제 도출을 위해 『退溪集』 각권과 『朱子全書』, 『毛詩集解』 등의 문헌을 참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후 6곡 중 심화 고찰이 필요한 구절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지는 "학문하는 선비가 곧게 추구해야 하는 바른 지향점"을, 언학은 "학문하는 자가 견지해야 하는 올곧은 태도"를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견해들에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문헌 고찰을 더하여 그 의미와 성격을 보다 풍부하게 드러냈다.

「도산십이곡」과 관련된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작품 해석에 대한 기존의 견

19) 성기옥, 「陶山十二曲의 재해석」, 『진단학보』 제91호, 진단학회, 2001, pp.247-275.
20) 황병익,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pp.359-391.
21) 황병익,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Ⅱ」, 『한국학』 36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270-2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계의 철학적 사유와 학문적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과 역사적 사건들을 재검증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작품의 예술성, 문학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작품 해석에 작가의 사상과 철학적 담론 등을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 이것들이 '인간 가치의 추구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美의 영역, 藝術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승관은 「權好文 詩歌에 형상화된 獨樂과 處士文學」[22]에서 송암의 閑居를 통해 시에 형상화된 獨樂은 산수자연 속에 묻혀 실천적 삶을 통해 자각된 미적 체험의 詩的 경지임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山水樂이 道의 세계를 지향하게 될 때 "獨樂의 詩境"이라는 형이상학적 서정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송암의 은거 생활 속 자아실현이라는 가치 추구 양상을 문학과 예술 영역의 서정과 미학적 양식으로 전환하여 개별 작가로서의 특성을 밝혔다.

김문기는 「權好文의 詩歌 硏究 - 閑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23]에서 「한거십팔곡」은 1~8수에서 過去之事로서 심적 갈등을 술회하고, 후반부인 9~19수에서 現在之事로서 隱求之樂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시가의 제 16수와 「獨樂八曲」의 제7장의 연관관계를 들어 이 부분을 「독락팔곡」의 일부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작가의 생애와 시가관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송암 시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토대로 「한거십팔곡」과 「독락팔곡」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김상진은 「松巖 權好文 詩歌의 構造的 理解」[24]에서 2연~7연은 出處 사이에서 방황하는 심경을 초장 중심형의 구조로, 8~14연에서는 安貧樂道의 儒者的 삶을 단순 나열형으로, 15~18연까지는 자연 속에서 앞으로의 志向이 나타나는 종장 중심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김상진은 「독락팔곡」이 시가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후렴구를 고려해 7장을 2개의 장이 합쳐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독락팔곡」의 일부가 「한거십팔곡」에 차용되었다는 견해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

22) 고승관, 「權好文 詩歌에 형상화된 獨樂과 處士文學」, 『退溪學論叢』 제32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23) 김문기, 「權好文의 詩歌 硏究 - 閑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 『한국의 철학』 제1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6, pp.63-82.

24) 김상진, 「松巖 權好文 詩歌의 構造的 理解」, 『동아시아문화연구』 제18권, 1990, pp.35-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병국은 「송암 권호문 시가의 미적 특질」[25]에서 송암의 「한거십팔곡」과 「독락팔곡」은 서로 다른 미적지향을 가지고 있어, 전자는 “淡泊-蕭散沖澹”, 후자는 “閒興-閒美淸適”으로 정리하였다. 「한거십팔곡」에 담긴 立志(1곡~8곡)와 向志(9곡~19곡)의 내용은 다름 아닌 송암의 眞率함과 醇朴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淡泊美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한편 「독락팔곡」은 자연을 속에서 “忘機를 통한 無心”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때 閒과 興이 결합한 미의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송암의 품성이 시가에 담겨 미적 특질을 구성한다고 보고 이것들이 두 시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규명하였다.

하윤섭은 「‘행위자의 귀환’과 송암 시가의 재해석」[26]에서 송암 시가를 ‘擧業에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은거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미적 동물’로서 경제적 논리와 쾌락의 원칙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근거로 송암 시가를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학문적 당위”를 추구한 “의미화 작업”의 결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송암의 생애와 행보에 대해 수동적, 체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중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이 논리와 합리의 차원을 넘어선 능동적·주체적 선택을 하는 것에 주목하여, 송암 시가의 의미화 작업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한거십팔곡」과 관련된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작가의 개인사와 시가의 형식,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담긴 독특한 미적 특질 혹은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도산십이곡」과 관련된 연구들처럼 작품에 담긴 작가의 철학적 사유를 문학적, 예술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전의 가치를 현재의 우리에게 맞도록 새롭게 발굴하려는 작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에 담긴 문학교육적 가치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학습자 수준에서 감상·체험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으로,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5) 김병국, 「송암 권호문 시가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19집, 한국시가학회, 2005, pp.157-183.

26) 하윤섭, 「‘행위자의 귀환’과 송암 시가의 재해석」, 『민족문화연구』 제71호, 2016, pp.157-18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강기수는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27]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어린이 철학교육(Teaching Philosoghy For Children)'에 주목하였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퍼스(C. S. Peirce)와 듀이(J. Dewey)에 의해 창안된 개념인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가 대화적 탐구를 통해 '함께 철학하는 것'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는 학습자의 주체적·능동적 학습능력 신장,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침 등 총 5가지로 요약된다.

박선영, 김회용은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구성방법 : 대화(Conversation)와 내러티브(Narrative)」[28]에서 18세기 근대 계몽 사회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자유교육'의 한계를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공동체' 교육의 일환인 립맨(M. Lipman)의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제안한다. 자유주의 교육과 공동체주의 교육의 실천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탐구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대화(Conversa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때 구성원은 각자의 상식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대화 과정의 실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 "내러티브하기"를 보완할 경우 대화 본연의 성격이 풍성하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오창진, 김회용은 「배움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육방법론 개선방안」[29]에서 콜버그(L. Kohlberg)와 리코나(T. Lickona)의 탐구공동체의 특성을 고찰한 후, '탐구'와 '공동체'를 결합한 개념으로서의 립맨의 탐구공동체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립맨의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탐구'라는 자기수정적 태도를 기본으로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기대하지만, 그 수업의 내용이 교실 밖과 지역사회로 확장·연계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

27) 강기수,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제19집, 2006, pp.1-21.
28) 박선영, 김회용,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구성방법 : 대화(Conversation)와 내러티브(Narrative)」, 『교육철학』 제49집, 2010, pp.49-75.
29) 오창진, 김회용, 「배움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육방법론 개선방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5권 3호, 2010, pp.127-1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토 마나부의 '배움공동체'에서 교사 역량이 지역사회 수준으로 확장되어 실현되는 점을 참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호중은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한 논술교육 연구」[30]에서 국내 논술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 탐색의 일환으로, 립맨의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수업 모형으로 활용한 논술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논술교육이 지향하는 고차적 사고력 향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 사회구성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토의 모형, 디베이트 토론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과 논술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고차적 사고력을 목표로 탐구가 가능한 토론·논술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철학 소설 『리자(Lisa)』와 고1 『도덕』 교과에 적용한 수업 결과를 연구에 싣고 있다.

이상의 '철학적 탐구공동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관점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학생이 수업의 주체로 나서게 됨으로써 현장에서 이를 반영한 수업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있지만, 학생 중심의 수업은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공존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탐구의 방법으로서 '함께 철학하는 것'을 제안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공통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이상에서의 선행 연구사 검토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방법은 퇴계·송암 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성리학을 현상학과의 간학문적 탐구를 통해,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가 반영된 미의식과 가치 지향 양상을

30) 이호중,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한 논술교육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성리학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이해하려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리학의 핵심개념인 理一分殊를 현재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둘째, 理一分殊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실로 두 학문의 지향하는 바가 하나의 종착점으로 수렴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셋째, 이 수렴의 양상은 理一分殊라는 성리학의 핵심 사유가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美的 가치의 구성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의 구체적 이해를 위해 우선, 두 학문의 전반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성리학은 명칭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性과 理에 대한 학문으로, 인간 본성과 이치를 탐구하는 理學의 범주에 속한다.[31] 주자의 성리학은 이후 조선에서 15세기의 정도전과 권근, 16세기 전반기 서경덕의 연구 활동을 양분 삼아 退溪 李滉에 이르러 만개한다.[32] 퇴계[33]의 이론은 程朱學 계열의 主理的 경향을 띠었으며, 그의 학문적 업적은 後學들에게 계승·변화되었다. 이 연구에서 퇴계와 함께 다룰 松巖 權好文[34]은 퇴계와 사제지간이자 외종손으로서,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산림처사다.

퇴계·송암 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성리학은 理氣論에서 말하는 인간과 우주 생성의 理가 本性의 실현과 연관되고, 이 性을 내재한 心의 작용을 心性論 차원에

---

31) 김낙진 외 7인, 『교육과 성리학』, 학지사, 2017, p.23.

32) 윤사순은 성리학이 14세기에 이색 등에 의해 뿌리내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15세기의 정도전·권근, 16세기 전반기의 서경덕·정지운의 연구 활동의 결과로 조선의 성리학 연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한다. (윤사순, 『한국유학사 상 - 한국유학의 특구성 탐구 -』, ㈜지식산업사, 2012, p.283 참고.)

33) 退溪 李滉(1501-1570)은 영남학파의 宗師로서,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에서 7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부친 없이 모친의 훌륭한 가르침 속에서 21세에 성균관에 유학하고, 34세에는 대과에 급제해 벼슬길을 시작하였다. 그의 관직 생활은 56세 때 홍문관 부제학 이후에 58세에 致仕疏를 올리며 마무리되고 도산서당에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대표 저서로는 『論四端七情書』, 『自省錄』, 『朱子書節要』, 『聖學十圖』 등이 있다. (윤사순, 위의 책, pp.284-285 참고.)

34) 松巖 權好文(1532-1587)은 퇴계를 宗師로 하는 영남학파의 순수처사로서 안동부 송야리(松夜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세에 회시에 입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35세 때 모친의 삼년 상을 마친 후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청성산에 은거하여 도학 공부에 전념하였다. 순수처사로서 그의 행보는 「독락팔곡(獨樂八曲)」과 「한거록(閒居錄)」을 통하여, 그 불사(不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작인 『송암집』은 송암의 아들인 권행가(權行可, 1553-1623)가 처음으로 엮었고, 여기에는 총 1325제 170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권호문 저, 안정 옮김, 『송암집 1』, 도서출판 드림, 2015, pp.20-40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다룬다.[35] 따라서 理의 관점에서 우주와 개별 사물들은 그 구성 원리로서 동일하며, 학문을 하는 선비는 格物致知를 통해 우주의 이치를 窮究하고 자신을 수양해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핵심적인 우주관은 理一分殊로 집약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理一分殊는 만물이 초월적·보편적 생성 원리의 측면에서는 하나인 반면, 그 원리가 내재한 본성의 측면에서는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분화됨을 가리킨다. 즉 이 사유체계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理는 하나(理一)이나 이는 만물을 통해 다양하게 실현(分殊)된다는 점이다.[36] 또한 이 관계는 '性卽理'의 관점에서 자아의 理(性)와 세계의 理(性)가 일치되면서도[37]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현상학은 에드문트 후설(E. Husserl)[38]이 유럽 인간성의 위기는 합리주의가 '자연주의'와 '객관주의' 속에 매몰된 것[39]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안한, 철학적 방법론이다. 이때 현상학은 현상의 사태, 그 자체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후설은 이때 관여하는 의식의 특성으로 브렌타노(F. Brentano)의 '의식의 지향성' 개념을 받아들인다.

의식의 지향성은 '사유'를 뜻하는 희랍어 노에시스(Noesis)와 '사유된 것'을 의미하는 노에마(Noema)의 상관관계를 가리키는, 의식과 대상을 유기적으로 맺는 매카니즘이다.[40] 다시 말해 이 개념에서 대상은 의식작용과 연관된 의식의 지향결과이고, 이 의식에 보인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작용[41]이 바로 의식의 지향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지향성은 현상학을 관통

35) 이동희, 『주자학 신연구』, 문사철, 2012, p.45-46.
36) 강신주, 『철학 VS 철학』, ㈜그린출판사, 2010, p.669.
37) 손오규는 理는 존재의 원리이고 인간행위의 준칙이므로, 학자는 居敬과 窮理를 통해 사물에 내재하는 理와 자아의 理의 동일함을 깨닫는 순간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171 참고.)
38)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현상학의 창시자로서, 모든 편견에서 해방된 '사태 자체로(zur Sachen selbst)' 직관하는 엄밀한 의미로서의 철학을 추구하였다. 그는 초기 수학을 전공하였지만,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브렌타노(Franz Brentano, 1838-1917)의 강의를 듣고 철학으로 전향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산술철학』, 『논리연구』,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데카르트적 성찰』,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등이 있다. (이종훈,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문명 비판』, 한국학술정보㈜, 2014, pp.8-10 참고.)
39) 이종훈, 위의 책, p.99.
40)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 후설, 하이데거, 샤르트르, 메를로-퐁티, 무어, 러셀, 카르납, 비트겐슈타인』, 知와사랑, 2007, p.108.
41) 피에르 테브나즈에 따르면, 환원은 즉 세계에 대한 의식,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을 나타낸다. (피에르 테브나즈 저, 김동규 옮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현상학의 전개과정은 이 의미의 지향성에 관한 분석과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42]

그런데 앞에서 후설이 지적했듯, 의식작용과 대상 사이의 일정한 방향성이 주체가 앎을 추구하는 방식을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후설은 이 의식의 일방통행적 행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으로는 판단중지, 형상적 환원, 선험적 환원 등이 있다.[43]

이처럼 성리학과 현상학은 근원적 앎을 발견·이해하는 과정에 인간 본성에 대한 주체적 자기반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학문의 상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통적 지향을 보여준다.[44]

우선 의식의 지향성은 理一分殊라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인 이성이 포착하는 명증한 앎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의식의 지향성은 보편적 구성 원리로서의 理를 궁구하는 과정에 의식적으로 현상학적 환원을 시도함으로써,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한다.[45] 또한 이렇게 이성적 차원에서 이해된 理一分殊의 세계관은 다시 자신과 타자, 세계가 공존하는 감성적 차원의 가치·윤리적인 실천적 당위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인간은 개별적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보적 관계는 의식작용의 두 측면인 '知'와 '心'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인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통찰함으로써 실천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이 두 개념은 서로의 부족한

』, 그린비출판사, 2011, pp.40-41 참고.)

42)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p.93.

43)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판단중지는 세계의 존재를 소박하게 전제한 자연적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정립한 것에 깃든 확신과 타당성을 일단 괄호 속에 묶어 경험의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형상적 환원은 개체적인 우연적 현상에서 '상상에 의한 자유변경', 즉 이념화 작용(Ideation)을 통해 보편적인 필연적 형상(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선험적 환원은 의식에 초월적인 대상을 의식에 내재적인 대상으로 환원함으로써 대상과 본질적 상관관계에 잇는 선험적 자아와 그 체험의 영역 전체(즉 선험적 주관성)를 드러내 밝히는 것이다. (이종훈, 앞의 책, p.121, 각주 번호 70 재인용.)

44) 이와 관련 권영화는 주자의 性卽理와 格物致知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도덕 현상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주자의 도덕 현상학으로 인해 천인합일의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권영화, 앞의 논문, p.190 참고.)

45) 이 현상학적 환원은 성리학에서 理를 궁구하기 위한 居敬窮理의 방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점을 보완하면서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을 완성·지향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이 상보적 특성은 인간 본성의 최대 실현, 즉 진정한 자기실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수렴되는 것이다.

이상의 간학문적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Ⅱ, Ⅲ장에서 퇴계·송암의 한시 작품들과 연시조 「도산십이곡」, 「한거십팔곡」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두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인물 간의 개인적 영향 관계와 동일한 학문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에 드러나는 특성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반영된 의식구조가 理一分殊의 세계관을 서로 다르게 포착·구성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학맥의 계승 양상이 퇴계에서 송암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둘을 대별시키는 미적, 가치 지향적 특성을 밝혀, 현재의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당위가 될 만한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어 Ⅳ장에서는 학습자가 퇴계·송암 시가의 감상을 통해 자신과 타자, 세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기실현[46]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학습 제재를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가치 지향적 美의 추구 양상이 자아와 세계의 조화와 자기실현의 한 방편으로서, 학습자에게 주는 문학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시조의 특성상 각 수가 개별적인 주제와 미의식을 노래하지만, 각 수의 의미들이 하나의 서사 또는 통합된 주제와 미의식으로 수렴될 때, 작품의 독창적인 詩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자가 자연을 이념적 표상이자 자신의 전범으로 삼고 이에 합일하고자 노력하는 기쁨을 노래한다면, 후자는 출사의 길과 산수의 삶 가운데 번민에 빠진 시적 화자가 마침내 이를 극복하고, 자연에 합일하는 경지를 노래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현실과 이상 또는

46)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실현의 개념은 로저스(Rogers, 1902-1987)의 인간중심상담에서 말하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을 매우 긍정적 존재, 자아실현의 의지가 있는 합목적적, 수용적, 현실적, 이성적,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자기수용과 자기통찰을 통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기실현경향성을 따라 성장·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경숙, 『생활지도와 상담』, 정민사, 2017, pp.207-212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의 두 가지 태도로서 학습자에게 제시된다.

이 두 가지 태도를 보며 학습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떠올려보게 된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학습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이해·적용함으로써 학습의 당위와 작품의 가치, 문학교육적 의의를 직·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 '함께 철학하는 것'을 지향하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을 적용한다면 확장된 사고의 장 속에서 개별 학습자의 교과 지식 탐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품에 담긴 미적 정서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은 철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 교과 지식을 학습자 수준에서 탐색·이해·표현해보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에서 학습자는 유의미한 지식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탐구 공동체와 함께 철학함으로써 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며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의 과정은 문학 교과 수업에서 1차적으로 교과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작가의 경험과 생각, 미의식을 학습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작품의 문학성 혹은 예술성에는 한 작가가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세계관, 즉 작가의 철학적 사유가 반영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退溪·松巖 漢詩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

퇴계·송암의 詩歌觀은 성리학자로서 그들의 학문적 지향과 나누어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작가의 시가가 노래하는 세계는 人間, 山水, 宇宙의 보편적 생성 원리인 理一分殊에 대한 감흥과 이러한 가치에 대한 지향적 태도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시가의 詩的 세계관, 즉 山水觀이 어떻게 漢詩 작품에서 美的으로 형상화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는 첫 작업으로, 의식의 지향성이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에 작용하여 어떻게 미의식을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두 작가의 미의식에 내포된 가치 지향적 성격이 문학교육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다루고자 한다.

1. 理一分殊와 산수경물의 形式美

성리학자인 퇴계와 송암에게 理一分殊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의식의 지향성이 포착하는 명증하고 엄밀한 앎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들에게 산수 경물은 보편적 理가 개별적 理로 내재된 궁구해야 할 대상, 즉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학문적 관점에서 산수 경물을 탐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생성에 보편적 理가 개별적 理로 내재된, 理의 分殊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게 품부된 개별적 理는 감상자에게 오감을 통해 인식되며, 이것이 자연 사물의 구성 형식에 부합할 때 그 표현은 외형적 美로 형상화된다.

다시 말해 이 외형적 미는 만물이 人爲가 아닌 자연 사물의 구성 형식을 따를 때 인식되는 感覺美이자, 山水의 形式美[47]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자연 속 다양한 생명과 풍광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수의 형식미는 순서상 감각적으로 포착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단계를 거친 후에 그 감흥을 노래할 때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퇴계·송암의 한시를 대상으로 하여 형식미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詠松

돌 위에 자란 천년 묵은 불노송(不老松)
마치 푸른 비늘 우굴쭈굴한 용의 기세로구나
까마득한 높은 벼랑에 우뚝 자라나서
기세는 하늘을 쓸어낼 듯 준봉을 내리누르는 듯
울긋불긋 사치스러움이 본성을 상케 함을 원치 않으니
도리(桃李)의 아름다운 자태를 기꺼이 따르겠는가
깊디깊은 뿌리 구사(龜蛇)의 기골을 키웠으니
한 겨울 눈서리에도 그 모습 의연하도다

石上千年不老松　蒼鱗蹙蹙勢騰龍
生當絶壑臨無底　氣拂層霄壓峻峰
不願靑紅戕本性　肯隨桃李媚芳容
深根養得龜蛇骨　霜雪終敎貫大冬[48]

퇴계의 「詠松」은 한겨울 눈서리 속 峻峯의 벼랑에 우뚝 자란 불노송(不老松)을 노래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은 1구, 2구의 불노송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이후 서서히 遠景으로 물러나면서 준봉의 벼랑을 내리누르는 듯한 불노송의 모습에 머문다.

시적 화자에게 불노송이 '용의 기세'와 '구사의 기골'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美的 가치로 포착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의식의 지향성이 불노송의 理, 즉 본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소나무의 본성은 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생명력에 있

47)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p.20-21.
48) 원문 및 번역은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pp.160-161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데, 더군다나 불노송은 한 겨울 눈서리를 맞으며 준봉의 벼랑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性을 다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이러한 불노송의 性은 5구, 6구의 '울긋블긋 사치스러움', '도리의 아름다운 자태'와 대조됨으로써 그 형식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불노송의 형식미는 1차적으로는 감각적 인식, 2차적으로는 산수 경물의 理의 分殊를 이성적으로 포착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식미는 이처럼 산수의 개별 대상에게 내재된 理를 이해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별 산수가 하나의 경물이 돼 이루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아래의 시를 보자.

春望

봄날 해가 산 정자에 늦게 뜨고
바람 앞에 나비가 비껴나네
시냇가 버들에는 푸른빛이 감돌고
언덕의 꽃은 붉은 봉오리 터트리네
아지랑이가 밝은 문에 피어오르고
갈매기는 저녁 모래톱에 서 있네
발을 걷고 잠자는 것 포기한 채
술이 있는 서쪽 집을 찾아가네

春日山亭晩　風前蝶影斜
靑舒溪上柳　紅綻岸頭花
野馬浮晴戶　江鷗傍晩沙
捲簾違睡課　有酒問西家[49]

송암의 「春望」은 봄날의 다양한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각 구의 표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듯,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수 경물의 형식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1구의 산 정자에 봄날 해가 떠오르는 아침부터 시적 화자

49) 원문 및 번역은 권호문 저, 안정 옮김, 앞의 책, p.114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술이 있는 서쪽 집을 찾아가는 8구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적인 변화를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산 정자의 시적 화자는 아침 해를 맞이하면서 봄바람에 나비가 미끄러지듯 비껴나는 모습과 시냇가 버들의 푸른 빛, 언덕의 붉은 꽃봉오리를 차례로 바라본다. 나비의 동적인 움직임과 버들의 푸른 빛은 언덕의 붉은 꽃봉오리가 터지는 장면에서 극적인 봄의 생명력을 더해 표현된다. 그야말로 봄의 약동하는 생명들이 제 本性을 다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시적 화자는 아지랑이를 뒤로 하고 저녁 강가의 갈매기를 보다, 발(簾)을 걷고 술이 있는 서쪽 집으로 향한다. 이처럼 이 시는 각 구의 생생한 표현을 통해 봄의 생명력의 일순간을 포착하면서 개별 산수 경물의 형식미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이에 시적 화자는 감흥이 일수밖에 없다.

또한 이 작품은 개별 산수 경물의 형식미를 잘 드러내면서도, 시상 전개에 일면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존재가 각 구의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내적 논리가 되어 제목인 「春望」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하나로 수렴되는 봄날의 경치는 시적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산수의 형식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퇴계·송암의 시가에서 확인되는 산수의 형식미는 감각적으로 시적 화자에게 인식된 후에, 分殊된 理를 포착하는 성리학자로서의 의식의 지향성이 이성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시상 전개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내면의 목소리, 즉 감흥과 지향의 표현은 담담하게 서술된다.

2. 理一의 理와 가치 지향의 內容美

감상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산수의 형식미는 이 '美'라는 가치 영역이 의미하는 바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떤 내적 지향을 함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수미는 그것이 본래 사물 구성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상자의 내적 지향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美의 인식이 감상자의 주관적인 가치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외형적 美가 감상자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미의식에 의해 의미 존재로 발견, 연상, 창조될 때 산수의 內容美[50]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송암 시가의 내용미에는 두 작가의 학문적 지향과 가치관, 체험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식미는 의식의 지향성이 보편적 理의 分殊를 감각적으로 인식, 이성적으로 지향·포착하는 경우라면, 내용미는 여기에 감상자의 주관적 가치와 감성이 더해진 美的 이념을 말한다. 즉 이 美的 이념은 미의식이 대상 구성적 작용을 수행할 때 나타나므로, 내용미는 의식의 지향성의 理一分殊를 향한 대상 지향적·구성적 의식작용의 결과로, 감상자의 이성적·감성적 가치를 함께 다룬 미의식이다. 아래의 퇴계의 시에서 산수의 내용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遊春詠野塘

이슬 머금은 풀들 곱게 물가에 드리웠으니
작은 연못은 물이 맑고 깨끗해 모래조차 없구나
구름이 날고 새 지나감을 본래 다 비추이거늘
다만 이따금씩 제비가 물을 찰 것 같네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淸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51]

「遊春詠野塘」은 봄날 들판에 있는 작은 연못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의 시상 전개는 들판 연못과 그 주변으로 한정 돼 있고, 시적 화자의 감흥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봄놀이를 나온 시적 화자는 들판의 이슬 머금은 풀, 모래 하나 없는 깨끗한 연못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1, 2구에서 이 두 소재는 병치 돼 깨끗하고 맑은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되고, 시 속의 산수 경물들은 모두 제 性을 실현한 형태인 산수의 형식미로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에 포착된다. 그런데 3구, 4구로 넘어오면서 시적 화자는 '다만 제비가 이따금씩 깨끗한 연못의 물을 찰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이 주목되는 이유는 앞에서 이어져 오던 형식미

50) 손오규, 앞의 책, 2006, pp.25-27.
51) 원문 및 번역은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p.153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차원의 아름다움이 시의 후반부에 와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우선, 이 시구가 산수의 형식미를 담담히 노래한 것이라면, 봄날 들판의 풀, 연못, 제비는 각자 제 性을 실현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관점에서 3구와 4구는 '구름이 날고 새 지나감을 본래 다 비추고 // 제비는 이따금씩 물을 차고 가네'와 같이 표현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제비가 물을 차고 가는 것, 물이 제비로 인해 일렁이는 것 모두 자연 사물 구성 형식에 부합한 형식미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이와 같이 표현하지 않고 '구름이 날고 새 지나감을 본래 다 비추이거늘 // 다만 제비가 물을 찰 것 같다'고 하여 그 행위에 마음을 둔다. 따라서 3, 4구의 표현은 시적 화자의 봄놀이에 대한 감흥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감정을 이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비가 물을 차는 행위로 물을 일렁이게 하여 사물을 본래대로 투영할 수 없도록 만들 듯, 사람의 마음도 그 청정한 마음이 다른 세속적 원인에 의해 흐려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내용미는 맑고 투명한 연못물에 구름과 새가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투명하고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시적 화자의 정신적 지향을 나타낸다.[52] 이러한 가치 지향은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사물의 개별적 理를 포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낸 理一分殊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내용미를 형상화하는 또 다른 예로 송암이 柳雲龍의 「雪中雜韻」을 次韻한 아래의 시[53]를 보도록 하자.

柳應見過松巖 留雪中雜韻 追次

달빛과 솔바람소리가 찬 창으로 들어와
은색 병풍 둘러친 산을 실컷 바라보네
버들개지 날고 소금 뿌린 것으로 비유하지 말고

52)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pp.154-155.
53) 1559년 겨울에 류운룡이 송암을 만났다는 연보의 기록으로 보아 「雪中雜韻」이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시를 송암이 차운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류운룡은 송암과 도가 같고 마음이 미더워 주고 받은 편지와 시가 많았다고 전한다. (권호문 저, 황만기, 권영락 옮김, 『송암집 5』, 도서출판 드림, 2018, p.215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저녁 하늘의 광풍제월을 기다려야 하리라

月華松響透窓寒　剩對銀屛擁玉巒
飛絮散鹽休取比　晩天須待霽光看[54]

1구에서 달빛의 은은함과 고요함, 솔바람소리의 차고 푸르른 공감각적 심상의 효과는 겨울밤의 분위기를 한층 자아낸다. 또한, 2구에서 시적 화자는 창을 통해 눈 덮인 산을 실컷 바라보고 있는데, 창 속에 은색 병풍을 둘러친 산이 가득하니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초반의 시상 전개는 겨울밤의 눈 덮인 산이 형상화하는 형식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는 이후 3, 4구에서 발견되는데 시적 화자는 겨울 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경치를 '버들개지', '소금'으로 비유하지 않고 저녁 하늘의 '광풍제월'을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3구와 관련된 晉나라 謝安의 고사를 차치하고서도 매우 신중한 자세임을 알 수 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자신의 감흥을 쉬이 표현치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광풍제월'때문이다. '광풍제월'은 黃庭堅이 周敦頤의 인품을 표현한 것으로 마음결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후의 달과 같음을 일컫는다.

따라서 3, 4구에서 시적 화자는 외부 사물에 의해 마음이 쉽게 경거망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표현을 삼가고, 이를 통해 주돈이의 인품을 닮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시구에서는 산수 경물의 형식미를 한껏 만끽하면서도, 여기에 자신을 경계하는 주관적 가치를 이입한 내용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산수의 내용미는 감상자가 자연의 본래 구성 형식을 보고 감각적으로 포착한 형식미에 자신의 주관적 감성, 체험, 가치관 등이 종합된 미의식을 더해, 美的 이념을 표상케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 미적 이념이 표상하는 바는 理一分殊이고, 이것이 형상화될 때 퇴계와 송암의 산수는 시적 화자의 내면의 목소리와 가치관이 담긴, 의식의 대상 지향·구성작용의 결과로서의 美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山水美는 형식미와 내용미의 총체로, 시적 화

54) 원문 및 번역은 권호문 저, 안정 옮김, 앞의 책, p.264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理一分殊를 이성과 감성의 차원에서 지향·구성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산수 경물과 주체가 情景隆化하는 理念美임을 알 수 있다.[55]

한편 위에서 확인한 바처럼 퇴계와 송암은 성리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학문적 지향이 동일하여, 작품에 담긴 산수미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의 초반에서 언급한 바 있듯, 美의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것이 서로 다르게 인식·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내용미를 다룰 때 대상으로 삼았던 두 작품에서 산수 경물로부터 얻는 가치 지향은 유사할지라도 이를 의식, 체험, 감상, 표현하는 두 작가의 감정의 밀도가 서로 달랐던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어떤 연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구성된 미의식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3. 美的 감흥의 표현과 本然之性의 추구

퇴계와 송암은 서로 사제지간이자 혈연관계이기도 했으므로 학문적·개인적 교류가 잦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두 작가의 시 세계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에서도 일례를 들었지만 성리학자로서 두 인물의 지향이 별반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래하는 개인의 체험, 가치관 등이 반영된 미의식의 표현은 서로 다르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퇴계·송암의 미의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 안에 함의된 문학교육적 의의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두 작가의 미의식이 달리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할 때 작품과 작가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해,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서 두 작가의 선천적 성품과 기질, 가치관이 그들의 작품에 반영돼 있다고 전제해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는 성리학자로서의 이

55)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3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이 개별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퇴계의 「石蟹」와 변 생원이 麻甘庵에 쓴 시에 송암이 차운한 시[56]이다.

石蟹

돌을 지고 모래를 파서 스스로 집을 삼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다리가 많구나
한 평생 한 움큼 산 샘물 속에 머물러
강호의 물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는도다

負石穿沙自有家　前行卻走足扁多
生涯一掬山泉裏　不問江湖水幾何[57]

次邊生員麻甘庵題

소나무 숲 깊은 곳의 두어 칸 암자에서
시원한 처마 아래 홀로 누워 선경에서 달게 자네
손님이 사립문을 두드려 낮잠에서 놀라 깨어
한바탕 차 마시며 담소하는 흥을 주체할 수 없네

松林深處數間庵　孤臥風簷鶴夢酣
客扣雲扉驚午睡　一場茶話興難堪[58]

위 작품은 두 작가 모두 15세 때 쓴 한시이다. 퇴계는 「石蟹」에서 가재의 외형과 존재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욕심 없이 사는 삶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송암은 「次邊生員麻甘庵題」에서 소나무 숲 암자의

56) 1546년 송암이 15세 때 아버지와 함께 麻甘山 墳庵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의 친구인 邊廣이 찾아와 시를 짓고 송암에게 답하라고 하여 차운해 쓴 시이다. (권호문 저, 황만기, 권영락 옮김, 앞의 책, p.194 참고.)
57) 원문 및 해석은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p.150에서 인용하였다.
58) 원문 및 해석은 원문 및 번역은 권호문(안정 옮김), 앞의 책, 2015, p.64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원한 처마 아래서 낮잠을 즐기다, 손님이 찾아와 함께 담소 나누는 즐거움을 노래한다.

詩作 당시의 상황,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을 차치하고 시적 화자의 어조와 감정표출 정도에 주목한다면, 퇴계는 사색적이고 미묘하지만, 송암은 감정적이고 선명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의 전제를 고려할 때, 본래 가지고 있는 태생적 성향과 기질, 가치관이 작품 속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에 작용·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 작품별 대조는 해당 작가의 시 세계 일면을 이해하고 특징 지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좀 더 세밀하고 총체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룬 모든 한시 작품들의 공통적 특성과 두 작가가 생애 후반에 쓴 시가관이 담긴 글을 종합해 봄으로써, 그 영향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래는 퇴계의 「陶山十二曲跋」과 송암의 「獨樂八曲 幷序」의 일부이다.

> 노인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음란한 것이 많아 족히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종류는 문인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한 데다 외설적이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鼈)의 <육가(六歌)>가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그대로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또한 안타깝게도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뜻이 없다. (…) 그러므로 일찍이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첫째 편은 뜻을 말한 것[言志]이고, 둘째 편은 학문을 말한 것[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여 안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면,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며 감발하고 융통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59]

59)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先生文集』 卷43. (번역은 권순회, 이상원, 신경숙, 『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p.37에서 인용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책을 읽는 여가에 마침 좋은 때의 흥과 읊조릴 만한 일이 있으면 표현하여 노래를 짓고 곡조에 맞춰 곡(曲)을 만들었는데, 붓을 놀려 차례대로 지어 악부(樂府)를 본떠 만들었다. 비록 흐느끼는 듯한 절주는 없지만 듣고 잘 살펴보면 말 가운데 뜻이 있고 뜻 가운데 가리키는 바가 있어 듣는 이가 감발하여 찬탄하도록 하였다. (…) <고반(考槃)>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 중에서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한지를 모르겠다. (…) 옛사람이 "노래는 근심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 또한 내 마음이 불평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문공(朱文公)이 말하기를 "그 뜻하는 바를 읊고 노래하여 성정(性情)을 기른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하구나, 이 말이여!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이러한 노래가 있고, 노래고 뜻을 통창하여 그 성정을 기른다.[60]

퇴계는 「陶山十二曲跋」에서 「翰林別曲」과 같은 종류의 노래들이 矜豪放蕩, 褻慢戲狎한 점을 지적했고, 李鼈의 「六歌」도 玩世不恭한 뜻이 있어 노래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노래가 溫柔敦厚한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뜻을 담은 노래를 지어 가창자, 청자 모두 유익하게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부르고 듣는 모든 이에게 온유돈후한 뜻이 感發하고 融通하여 그들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 주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암은 「獨樂八曲 幷序」에서 흥이 일고 읊조릴 만한 일이 있으면 曲을 지어, 듣는 이가 그 뜻이 가리키는 바에 感發하고 興嘆케 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考槃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 가운데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노래는 마음이 불평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그 뜻하는 바를 읊고 노래함으로써 성정을 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암의 시가관은 마음에 불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노래하여 감발하고 흥탄케 함으로써 그 성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별 한시 작품의 공통적 특성과 그들의 시가관을 종합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詠松」, 「遊春詠野塘」, 「石蟹」에서 드러나는 시상 전개의 특징은 객관적·사색적인데, 이는 노래가 온화하고 너

60) "黃墨之暇 會有嘉長之興 可詠之事 發以爲歌 調爲爲曲 揮毫題次 擬爲樂府 雖嗚嗚無節 聽以察之則詞中有意 意中有指 可使聞者感發而興嘆也. (…) 考槃之歌 負薪之謠 不知孰優孰劣也. (…) 古人云 歌多出於憂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 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而有是歌 歌之暢志而養其性" 權好文, 「獨樂八曲 幷序」, 『松巖續集』 卷6. (번역은 권호문 저, 황만기, 권영락 옮김, 앞의 책, pp.158-160에서 인용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운(溫柔敦厚) 뜻을 담아야 한다는 그의 시가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암의 「春望」, 「柳應見過松巖 留雪中雜韻 追次」, 「次邊生員麻甘庵題」에서 확인되는 시상 전개의 특징은 주관적·감상적인데, 이는 흥이 일고 읊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曲을 짓는다는 그의 시가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장에서 다룬 퇴계의 한시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감정의 밀도가 낮은 이유는 그의 태생적 기질 및 가치관에 더해, 노래에 대한 생각 즉,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 '感發融通'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퇴계의 노래가 담고 있는 정신적 가치 지향은 일어난 감정이 녹아들어 통하게 되는, 근심 없고 성정이 길러진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송암의 한시 작품에서 확인되는 선명한 감흥의 표현, 직접적인 의지 표명의 자세는 마음이 불평한 것을 노래하여 그 뜻하는 바를 읊는, 이른바 '感發興嘆'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송암의 노래는 감정의 종류를 차치하고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를 탄식하고 노래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感發融通'과 '感發興嘆'은 작가이면서 시적 화자인 퇴계·송암의 理一分殊를 궁구하는 의식구조의 한 단면이자, 가치 지향적인 미의식임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대조해보면 퇴계의 '感發融通'은 자기 경계와 수양을 우선으로 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지만, 송암의 '感發興嘆'은 자기 표현과 해소를 통하여 이성과 감성의 조화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

이 둘은 얼핏 보면 서로 양극단의 태도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시가에 대한 두 작가의 공통된 생각이 성정을 길러주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가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일은 이들에게 성리학자로서 자신들의 개별적 理를 실현하는 일이자, 보편적 理와 조화를 이루는 자기실현의 방편, 즉 本然之性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본연지성을 추구·실현하는 방법으로서 '感發融通'과 '感發興嘆'의 함의는 그 방식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 각각이 自己實現的 가치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송암 시가의 학습이 문학교육적으로 현재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자기 통제와 수양, 자기 표현과 해소 사이, 누군가에게는 '感發融通'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른 누군가에게는 '感發興歎'이 자기실현의 긍정적 방안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생각은 결국 자신과 타자, 세계를 표현·이해하는 주체의 사유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 방식들의 지향하는 바가 다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 수렴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退溪·松巖 時調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

Ⅱ장에서는 퇴계·송암의 한시 작품을 대상으로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理一分殊를 이성과 감성의 차원에서 지향·구성하는, 形式美와 內容美의 총체로서의 山水美가 형상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山水美는 퇴계와 송암의 작품에서 각각 '感發融通'과 '感發興嘆'의 시가관을 기저로 한, 本然之性 추구의 한 방법이자 자기실현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산수미의 단면들을 두 작가의 독특한 詩境이 형상화된 연시조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을 대상으로 해,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산십이곡」의 山水觀, 「한거십팔곡」의 자아 인식이 자기실현의 가치 지향적 美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陶山十二曲」[61]에 나타난 山水觀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前六曲 言志와 後六曲 言學으로 구성된 12수의 연시조로, 그의 학문적 완성기에 陶山의 자연을 즐기고 후학 양성에 집중하던 1565년(명종 20년)때의 작품이다. 이 노래는 성리학자로서의 학문적 지향과 山水 愛好 정신이 담긴 철학적·미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산수를 노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계만의 독특한 시경을 개척하였다.[62]

이 노래에서 퇴계는 도산의 산수가 주는 이성적·감성적 차원의 감흥을 담담하게 노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감성적 차원의 감흥이란, 퇴계의 개인적 소회

61) 원문은 권순회, 이상원, 신경숙, 앞의 책, pp.31-36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62) 손오규는 퇴계의 「陶山十二曲」이 時調라는 순수 국문학 장르로 山水의 형식미와 퇴계학의 理念, 미의식이 표현된 우리나라 山水文學의 정점이자 白眉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陶山十二曲」은 山水를 이념의 表象으로 한 山水美를 노래한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14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가창자·청자 모두의 '감발융통'을 바라는 公的 지향의 뜻을 함께 담고 있다.[63] 다음에서는 「도산십이곡」을 前六曲, 後六曲으로 나눠 작품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前六曲

이런들 엇더ᄒᆞ며 져런들 엇더ᄒᆞ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더ᄒᆞ료
ᄒᆞ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ᄒᆞ료 (前一曲)

초장에서 草野 愚生인 시적 화자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떤 선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겠느냐는 그의 태도에서 주체의 자유보다는 체념과 포기의 수동적 반응이 엿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중장에서 시적 화자는 초야 우생의 삶이 이렇다 한들 어떠하겠느냐고 말하며 선택의 문제에서 다시 거리를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에 이르러, 시적 화자의 불분명한 삶의 태도는 '泉石膏肓을 고쳐 무엇 하겠느냐'는 확고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가 조선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노래에는 理一分殊라는 명증한 앎을 향한 퇴계의 의식의 지향성이 반영돼 있고, 우리는 가창자·청자·독자로서 그러한 의식의 흔적을 희미하게 혹은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64] 이러한 시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을 病과 같은 수준으로 즐기는 前一曲 천석고황의 태도는 초야 우생의 확고한 의지이자, 이 시의 주제의식으로 작용한다. 즉 시적 화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들', '저런들'과 같은 삶의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것

63) 서명희는 「陶山十二曲跋」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노래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여 感發融通 하도록 함으로써,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말한다. 이 뜻은 퇴계의 개인적 소회를 고백하는 것이기보다는 성리학자로서 지향할 만한 뜻을 천명하는 데 가깝다. (서명희, 앞의 논문, pp.64-65 참고.)

64) 「陶山十二曲跋」에서 퇴계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밝혔고, 그의 입장에서 이는 무엇보다 당시 문인이 지은 노래들이 온화하고 너그러운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放蕩하며 不恭했기 때문이다. 노래가 담아야 하는 뜻이 溫柔敦厚해야 함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性이 본래 그러함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理를 추구함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곧 性卽理의 성리학이 지향하는 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향인 천석고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조건과 방식은 '이런들, 저런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왜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일까? 이는 앞서 언급했듯 성리학자로서 퇴계의 理一分殊에 대한 명증한 앎을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의 지향성과 관련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理一分殊는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보편적 원리인 理가 만물의 본성으로 각각 내재함으로써, 그 理는 하나지만 만물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理一分殊의 세계를 이해하고 삶으로 체화하는 것은 이 理를 내재하고 있는 산수의 다양한 만물을 대상으로 궁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적 화자인 초야 우생은 천석고황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 이해가 막힘 없이 豁然貫通 해질 때 이 理가 인간의 본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시적 화자를 둘러싼 산수 경물의 理가 파악됐을 때 주체는 파악된 대상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된다. 결국, 理一分殊를 향한 窮理, 천석고황을 향한 의식의 지향성은 인간의 선한 본성인 理의 이해와 실현으로 결부되어, 인간과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적 인식을 발생시킨다.

한편, 초야 우생임을 자처하는 시적 화자를 퇴계로 전제할 때, 자신을 '어리석은 이'라고 말하는 그의 겸손한 자세는 일견 성리학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품성이다. 이는 스스로를 겸양의 자세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성리학의 居敬窮理로,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의식의 지향성이 명증한 앎을 포착하기 위해 의도적·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자기 반성인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前一曲은 퇴계의 성리학자로서의 본성 실현을 위한 산수 애호 정신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烟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 즁에 ᄇᆞ라ᄂᆞᆫ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前二曲)

前二曲은 前一曲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삶을 초장과 중장에 걸쳐 노래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있다. 시적 화자는 안개와 노을이 있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집으로, 맑은 바람과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한 세상에 病으로 늙어간다. 烟霞와 風月의 시각적 심상은 노을과 달에서 유추되듯, '해질녘-밤'이라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한편, 안개와 바람이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어찌하여 세상을 태평하다 느끼며 病으로 늙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수를 집과 벗으로 삼고 하루를 보내는 시적 화자가 앓는 병은 前一曲의 천석고황과 다를 바 없고,[65] 이중에 늙어가는 것은 만물의 生長 원리에 어긋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순리 속에서도 시적 화자는 여전히 '허믈이나 업고쟈'한다. 이는 前一曲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퇴계의 학자로서의 품성과 지향이 드러난 겸손의 표현과 부단한 자기 반성의 의지이며, 산수 경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淳風이 죽다 ᄒᆞ니 眞實로 거즛마리
人性 어지다 ᄒᆞ니 眞實 올흔 말이
天下에 許多 英才ᄅᆞᆯ 소겨 말슴ᄒᆞᆯ가 (前三曲)

시적 화자의 理를 궁구하는 의식의 지향성은 그 과정 속에서 理一分殊의 단면을 포착한다. 따라서 前三曲은 그러한 세계의 단면을 확인한 시적 화자의 확신이자 감동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순박한 풍속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윤리와 가치 당위로서 理가 風俗에 내재함을 말하고, 인성이 어질다는 말이 진실로 옳다는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理一分殊의 세계 속, 삶에 일순간 드러나는 명증한 앎은 시적 화자 자신이 천하의 영재를 속여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의 표현으로 마무리된다.

幽蘭이 在谷ᄒᆞ니 自然이 듯디 죠희

65) 손오규는 前二曲의 초장은 자연합일하여 天理를 궁구하여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학인의 생활이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병은 泉石膏肓이라 하였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240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白雲이 在山ᄒᆞ니 自然이 보디 죠해
이 즁에 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못ᄒᆞ얘 (前四曲)

理一分殊 세계의 목격과 그 감흥은 前四曲의 초, 중장에서 한층 더 구체화 된다. 幽蘭과 白雲이 각각 계곡과 산에 있음은 산수 경물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그 존재 양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렇게 산수 경물의 형식미 즐기고 있는 시적 화자의 감흥은 '듯디 죠희'와 '보디 죠해'라는 抒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흥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가 彼美一人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그 의식의 지향성에 기존과는 다른 가능태가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과 의식작용의 또 다른 지향적 관계는 性의 관점에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관계로도 해석된다. 즉, 퇴계의 선비로서의 그 性은 초야 우생이면서도 피미일인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야 우생이냐, 피미일인이냐를 가치론적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닌, 그것마저도 학자인 퇴계의 性으로 온전히 이해된다는 점이다. 즉 기질지성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 자체가 인욕의 영향으로부터 무방하다면 그것이 지양해야 될 性의 측면은 아닌 것이다.[66] 따라서 피미일인은 시적 화자의 인간으로서의 性을 온전히, 자연스럽게 드러낸 표현이며,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을 발견한 시적 화자는 자신의 性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山前에 有臺ᄒᆞ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뼈 만흔 ᄀᆞᆯ며기ᄂᆞᆫ 오명가명 ᄒᆞ거든
엇더타 皎皎白駒ᄂᆞᆫ 멀리 ᄆᆞ음 ᄒᆞᄂᆞᆫ고 (前五曲)

이상에서 확인되는 시적 화자의 학자로서의 두 가지 性의 실현 가능태는 前五曲에 이르러 다시 하나의 의식의 지향적 관계로 전환될 조짐을 보인다. 초장의

66)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구분은 이 둘을 실현해야 할 性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양분했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대조했을 때 그 특성이 온전히 드러나 그 性의 양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性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을 때는 본연지성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인욕과 그 기질의 영향에 따라 기질지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현은 도산의 天光雲影臺와 洛川이라 특정 짓지 않더라도, 일반적 표현으로 前四曲과 같이 자연지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山前의 臺 아래 물이 흐르고, 갈매기가 자유롭게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적 화자는 자연 이법의 일면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장의 皎皎白駒는 이러한 데 관심이 없고 멀리 마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詩經』小雅 白駒편에서 皎皎白駒는 시적 화자가 아침과 저녁 내내 잡아두어 풀을 먹이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前五曲의 시적 화자는 그 교교백구가 멀리 마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前五曲의 교교백구는 자신 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이치가 담긴 풍경 앞에서 이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시적 화자는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이 기질지성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 경계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본연지성의 추구는 만물의 이치가 담긴 자연에 한층 더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理를 발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유기체적 산수관으로 형상화된다.

春風에 花滿山ᄒᆞ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 佳興ㅣ 사ᄅᆞᆷ과 ᄒᆞᆫ가지라
ᄒᆞᄆᆞᆯ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닉 그지 이시리 (前六曲)

봄바람에 꽃이 가득한 산, 가을밤 달빛이 臺에 두루 가득한 아름다움은 계절의 변화와 그에 상응한 자연지성의 발현이다.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지성의 발현은 형식미의 발현으로서 이를 목격한 시적 화자에게 佳興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지성이 理一分殊의 일부인 인간의 본연지성으로 이해·확장되었을 때, 그 가흥은 활연관통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즉 초월적·보편적 理의 관점에서 四時와 人間이 하나를 이룸으로써,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理一分殊의 명증한 앎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 경물과 인간이 보편적 理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는 한편 온전한 개체로서 그 구성의 일부가 될 때[67], 이 가

67) 이러한 경지를 天人合一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손오규는 천인합일이 하늘과 인간이 하나인 존엄성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大我를 실현하는 인간의 삶이 天理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천인합일은 大我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는데, 이를 미학적 관점에서 理念美라 할 수 있다. (손오규,『조선조 士林과 산수문학』,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pp.188-189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홍은 종장에서 물고기 뛰고 솔개가 날아오르며, 구름의 그림자와 하늘빛이 天性을 얻어 끝없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로 비유되는 것이다.

2) 後六曲

앞의 전육곡은 理一分殊라는 유기체적 산수관을 이해하고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려는 시적 화자의 뜻이 담긴 言志를 노래했다. 다음의 후육곡은 앞서 확고히 세운 뜻을 바탕으로, 실천적 기반과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는 당위인 言學을 노래한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ᄒᆞᆫ듸
萬卷 生涯로 樂事ㅣ 無窮ᄒᆞ얘라
이 즁에 往來 風流ᄅᆞᆯ 닐러 므슴 ᄒᆞᆯ고 (後一曲)

理一分殊를 명증한 앎으로 체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理가 각각의 만물에 개별적 理로 내재한 삶의 세계에 시선을 두는 방법, 다른 하나는 그 이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도는 玩樂齋에서 많은 책을 쌓아두고 읽으면서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성현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읽고 理를 이해하는, 의식의 지향성이 앎을 포착·구성하는 과정 중에 얻는 이성적, 학문적 즐거움인 것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학문을 하는 무궁한 즐거움을 말하면서 종장에 이르러 往來 風流를 말해 무엇하겠냐고 말한다. 시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만권 생애로 그 즐거움이 무궁한 와중에 왕래 풍류를 말해 무엇하겠냐는 말은, 그 만권 생애의 무궁한 즐거움이 이미 왕래 풍류의 樂에 준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산 서당 주변을 산책하며 얻는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만큼, 수많은 책을 통해 성현을 만나 배우는 것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즐거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도산십이곡」이 노래하는 퇴계의 理一分殊에 대한 의식의 지향성은 그 과정에 이성적·실천적 차원의 知行竝進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雷霆이 破山ᄒᆞ여도 聾者ᄂᆞᆫ 못 듯ᄂᆞ니
白日이 中天ᄒᆞ야도 瞽者ᄂᆞᆫ 못 보ᄂᆞ니
우리ᄂᆞᆫ 耳目聰明 男子로 聾瞽 ᄀᆞᆺ지 마로리 (後二曲)

천둥과 벼락이 산을 깨도 聾者는 듣지 못하고,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도 瞽者는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이 총명한 우리는 그들 같지 말아야 한다는 종장의 당부는 각각 그 본연지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聾者의 듣지 못함과 瞽者의 보지 못함은 그들의 자연스런 본성인 것이고, 귀와 눈이 총명한 우리가 聾瞽 같지 말아야 함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聾者가 천둥과 벼락이 산을 깨는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고, 瞽者가 중천의 해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따스함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적 화자에게 理의 인식과 실현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며, 다만 그 가능성은 각각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性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본성을 최대로 발휘할, 끊임 없는 노력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後一曲에서 확인했던, 시적 화자의 지행병진이라는 부단한 자기 노력의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後二曲의 지행병진을 당부하는 비유적 표현은 다음의 後三曲에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당위가 제시됨으로써 뒷받침된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픠 잇니
녀든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졀고 (後三曲)

古人과 시적 화자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古人이 가던 그 길(理)이 자신 앞에 있어, 그 흔적을 좇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시적 화자가 발견한 성현의 길이 외부에 존재하는 명증하고 확실한 理로 비유·인식된다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점이다.[68] 이렇게 성현들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로 담은 책과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므로, 진정한 배움이란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숨어 있는 이치를 음미하고 체득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69] 따라서 우리는 後二曲의 '耳目聰明 男子'로서, 성현의 길을 마땅히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後三曲이 제시하는 배움에 대한 당위는 다음의 後四曲에서 시적 화자의 경험과 관련된다.

當時에 녀든 길흘 뎟 히롤 ᄇᆞ려두고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듸 ᄆᆞ음 마로리 (後四曲)

초, 중장에서 시적 화자는 그 시기와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래 가던 길을 몇 해 동안이나 버려두고, 다른 길을 걷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토로한다. 또한, 종장에 이르러 이제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이 길만을 고수할 것임을 다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시적 화자는 외부 영향으로 인해 後三曲에서 제시하는 '古人'의 길과 상반된 길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古人의 길과 같다고 여겼던 일이 실로 그렇지 않았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앞서 前四曲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理一分殊의 세계에서 자신의 性을 탐색하는 중에 확인되는 몇 가지 실현 가능태를 주체가 선택한 결과들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결국 이러한 경험이 학문을 향한 태도와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배움에 대한 내적·외적 所當然이 확고해지고 이것이 지행병진의 기반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산수미의 詩境으로 나타난다.

靑山은 엇제ᄒᆞ여 萬古에 프르르며

68) 성리학에서는 보편적 理가 만물에 깃들어 있으므로 이를 居敬窮理함으로써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상학에서 후설이 명증한 앎으로서 진리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이상적으로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69) 성기옥, 앞의 논문, p.2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流水는 엇제ᄒᆞ여 晝夜에 긋지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 ᄒᆞ리라 (後五曲)

靑山이 오랜 세월동안 푸르고 流水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산수 경물이 각기 그 分殊의 理를 내재함으로써 그 性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종장의 우리도 산수 경물이 그러하듯 그치지 않아 '萬古常靑' 하겠다는 데 있다. 즉 자연이 만고상청 하여 제 性을 온전히 실현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내재된 性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 포착한 理一分殊 세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기반인 끊임 없는 학문에의 정진을 요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靑山이 萬古에 푸르른 것', '流水가 晝夜에 그치지 않는 것'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의식의 지향성이 포착하는 형식미이다. 또한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 감정과 가치가 만고상청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됨으로써 내용미로 형상화된다. 이때 의식의 지향성은 우리와 만물을 개별적 理를 내재한 존재이자, 보편적·초월적 理로서 연결된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구성한다.

한편 이와 같은 하나의 명증한 앎이 구성되었을 때, 이는 반드시 실천적 영역으로 이행됨으로써 완성된다.[70]

愚夫도 알며 ᄒᆞ거니 긔 아니 쉬온가
聖人도 못다 ᄒᆞ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
쉽거나 어렵거나 즁에 늙ᄂᆞᆫ 줄을 몰래라 (後六曲)

어리석은 사람도 배워서 알아 행하기 쉽지만, 聖人은 배워서 알아도 못하니 어려울 따름이다. 이는 後五曲에서 다룬 앎이 결국 실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삶은 시적 화자에게 늙는 줄 모르는 즐거운 일로 표현되며, 앞서도 확인했듯 이러한 삶은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지성을 실현하는 것과 연

70) 손오규는 理致란 개념의 파악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실천을 통하여 실현돼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陶山十二曲」의 後六曲을 해석하면서 정도에 따라 사람은 자신의 재주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힘써 노력하는 중에 학문의 기쁨을 느끼며, 이 사이에 세속의 이욕에서 벗어나는 정신적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忘世究理의 風流라 일컬었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249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의 유기체적 산수관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前六曲에서 시적 화자는 천석고황의 자세로 초야 우생의 삶을 자처하면서, 이러한 가치 중심적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반성·경계한다.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자신의 본연지성을 끊임없이 산수로부터 궁구함으로써, 理의 관점에서 활연관통한 유기체적 산수관을 구축하는 데 一助한다. 즉 시적 화자와 산수는 전체의 질서 속에서 서로 분리해낼 수 없는 개체이자 전체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理를 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유기체적 山水觀은 1차적으로 시적 화자의 산수 경물에서 발견하는 개별적 理가 형식미로 형상화되고, 이후 여기에 자신의 감정, 가치관을 이입함으로써 내용미를 갖추게 된다.

한편 전육곡이 본연지성의 추구와 理一分殊의 유기체적 산수관을 궁구하는 '뜻'을 세웠던 데 반해, 후육곡은 이 '뜻'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기반인 '학문에의 정진과 배움의 자세'를 노래했다. 後一曲의 만권 생애의 樂은 前一曲 천석고황과 함께, 이성적·실천적 차원의 지행병진이라는 理를 향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으로 요약된다. 지행병진에 대한 내적·외적 당위는 後二曲의 聾者와 瞽者의 비유적 표현, 後三曲의 古人의 길, 後四曲의 시적 화자의 경험 제시로 인해 더욱 확고해진다. 이로써 마침내 後五曲에 이르러, 靑山과 流水처럼 만고상청 하겠다는 내용미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개별적 理를 내재한 산수 경물과 人間이 보편적·초월적 理로 一以貫之되는, 유기체적 세계의 일부로 구성되는 詩境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문제는 後六曲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로 대변된다. 이것이 뒷받침 되었을 때, 학문에 정진하는 삶은 본연지성의 실현이자 즐거움으로 그 당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2. 「閑居十八曲」[71]에 나타난 자아 인식

71) 원문은 권호문 저, 황만기, 권영락 옮김, 앞의 책, pp.171-179에서 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송암은 그의 개인사적 행보가 보여주듯이 30세에 進仕에 합격한 이후 다른 벼슬자리에 나아간 적이 없고, 또 몇 차례 除授 받은 적이 있지만 이 모두를 사양하고 靑城山에 隱居하면서 성현의 학문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품인 「한거십팔곡」은 19수의 연시조로, 『松巖集』 속집 제6권에 「獨樂八曲 幷序」, 「獨樂八曲」과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송암의 나이 15세 때 퇴계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거십팔곡」과 「도산십이곡」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시가를 대조해보면 이 장에서 다룬 「도산십이곡」은 그 술회를 비교적 담담하게 노래한 반면, 「한거십팔곡」은 시적 화자의 개인적 후회나 갈등, 지향과 의지 등을 담은 감정 표현이 밀도 있게 드러난다.[72]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 이유는 앞서 한시의 경우처럼 작가의 태생적 성향과 기질, 시가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양상은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이 理一分殊를 이성적, 감성적 차원에서 지향·구성할 때 발생한 차이로 인한 것이며, 산수미 또한 이를 반영하여 다르게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한거십팔곡」 각 수의 분석이다.

生平에 願ᄒᆞ노니 다문 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ㅣ나 다라리야
ᄆᆞᄋᆞᆷ애 ᄒᆞ고져 ᄒᆞ야 十載遑遑ᄒᆞ노라 (1수)

초, 중장에서 시적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忠孝뿐 임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짐승의 본성을 격하하는 것이 아닌, 시적 화자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또한, 종장에 이르러 이를 위해 十載遑遑했다고 회상함으로써 충효를 실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토로한다. 시적 화자에게 삶의 유일한 지향 가치가 충효였다는 점은 이 노래가 퇴계의 학맥을 이은 송암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성리학자로서의 본성 실현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

72) 김병국은 송암의 「閑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이 退溪의 溫柔敦厚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미적 지향이 각기 달라, 전자는 '淡泊-蕭散沖澹', 후자는 '閒興-閒美淸適'으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김병국, 앞의 논문, p.162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은 성리학자로서의 본성인 충효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 탐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본성의 실현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그의 삶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理를 궁구하는 그의 행보가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수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시적 화자는 마음이 급해지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가 주로 인식론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식의 다양한 대상 지향적 관계로 인해 감정이 드러나는 반면,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는 심리적 차원에서 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도산십이곡」은 理氣論에서 말하는 '理의 이해와 추구', 「한거십팔곡」은 心性論에서 말하는 '人心과 道心'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1수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감정의 밀도는 2수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면서 심화 된다.

計校 이ᄅᆞ터니 功名이 느저셰라
負笈東南ᄒᆞ야 如恐不及ᄒᆞᄂᆞᆫ 뜻을
歲月이 물 흘ᄋᆞ듯 ᄒᆞ니 못 이룰까 ᄒᆞ야라 (2수)

초장에서 시적 화자의 理의 실현은 功名(忠)을 이루는 데 있고, 이러한 이유로 시적 화자가 왜 중장에서 負笈東南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擧業하여 공명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시간에 쫓기게 됨으로써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이내 근심한다. 곧 1수에서의 十載遑遑이 2수의 如恐不及으로 변화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감정은 더욱 심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서 「도산십이곡」에서 본성의 실현과 관련,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性의 두 측면이며 경계하고 조심하는 정도에 따라 상호 전환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73] 이처럼 시적 화자

73) 이동희에 따르면 성리학은 근원적인 도덕의 준칙으로서 천리-성선-성즉리의 초월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기질에 의해 악의 문제를 설명한다. 이는 우주론(理氣論)에서 인간 악의 문제를 본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가치를 대립시킬 때는 일방적으로 악을 '절대악'이라 보지 않고 선에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인심-도심이 상호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동희, 앞의 책, p.159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마음에는 理를 추구하면서 道心을 향한 의식작용이 발생하지만, 주체의 의식적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인욕과 근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수의 시적 화자는 功名을 추구하고 負笈東南하는 의식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心性論 차원에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양상은 개인 의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74] 모친상을 당한 후의 그의 행적과 성리학자로서의 이상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理의 추구 과정에 발생하는 심성론 차원의 불일치는 '科擧之學'과 '性理之學'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아 인식의 혼재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5] 다시 말해 과거시험에 응시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삶과 산수 자연 속에서 진리와 이치를 탐구하는 성리학도의 삶 모두가 송암의 자아에 의식의 지향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이어지는 3수에서 변화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보며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록 못 일워두 林泉이 됴ᄒᆞ니라
無心魚鳥ᄂᆞᆫ 自閒閒 ᄒᆞ얏ᄂᆞ니
早晩에 世事 닛고 너를 조ᄎᆞ려 ᄒᆞ노라 (3수)

3수의 초장에서 시적 화자는 비록 이루지 못해도 林泉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것만으로 山水 속에서 그 자연의 理를 궁구하려는 성리학자로서의 자아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장에서 자연이 좋은 이유로 無心魚鳥의 한가함이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점이 있고, 종장에 자연을 좇으려 한 이유가 지금 자신이 처한 세상일을 잊고자 한 데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산수 지향의 태도는 世事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3수에서 드러나는 산수관은 낭만주의적·회피적인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4수, 5수에서는 시적 화자의 갈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혼

74) 『松巖集』의 연보에 따르면 23세 때 司馬試 初試인 鄕解에 입격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실패하였고 이후 30세에 이르러 進士가 되었다. 진사에 합격했지만 모친상을 마친 후에는 과거공부를 단념하고 도학공부에 전념한다. (권호문 저, 안정 옮김, 앞의 책, pp.31-34 참고.)

75) 하윤섭은 16세기 후반 예안 지역에서 退溪의 젊은 제자들이 '科擧之學'과 '性理之學' 사이에서 갈등을 거듭하다 후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윤섭, 앞의 논문, pp.161-167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란스러운 감정의 상태도 함께 표현된다.

江湖애 노쟈 ᄒᆞ니 聖主를 ᄇᆞ리례고
聖主를 셤기쟈 ᄒᆞ니 所樂에 어긔예라
호온자 岐路애 셔셔 갈 ᄃᆡ 몰라 ᄒᆞ노라 (4수)

어지게 이러 그러 이 몸이 엇디 홀고
行道도 어렵고 隱處도 定티 아냣다
언제야 이 ᄠᅳᆮ 決斷ᄒᆞ야 從我所樂ᄒᆞ려뇨 (5수)

앞서 제기했었던 성리학자로서의 자아 인식이 4수의 '江湖-聖主', 5수의 '行道-隱處'로 구체화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적 화자의 토로를 통해 2수에서의 공명지향의 어려움, 3수의 산수로의 회피는 실제로 성리학자로서의 두 가지 지향(理)이 혼재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의 고독과 불안, 초조함은 岐路에서 決斷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로 인해 그 표현은 산수 경물로부터 멀어지고 의식이 내부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6수와 7수에 이르러서는 시적 화자의 혼란스러웠던 자아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

ᄒᆞ려 ᄒᆞ려 ᄒᆞᄃᆡ 이 ᄠᅳᆮ 못ᄒᆞ여라
이 ᄠᅳᆮ ᄒᆞ면 至樂이 잇ᄂᆞ니라
우웁다 엇그제 아니턴 일을 뉘 올타 ᄒᆞ던고 (6수)

말리 말리 ᄒᆞᄃᆡ 이 일 말기 어렵다
이 일 말면 一身이 閒暇ᄒᆞ다
어지게 엇그제 ᄒᆞ던 일이 다 왼 줄 알과라 (7수)

6수의 '이 뜻'과 7수의 '이 일'은 각각 전자가 지향해야 할 대상, 후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표현된다. 앞선 4수와 5수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이 뜻'과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을 유추해보면 전자는 江湖에 隱處를 정해 至樂을 추구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것이고, 후자는 聖主를 섬겨 行道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이 뜻'은 실천하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있고, '이 일'은 하지 않으면 一身이 閒暇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적 화자의 본성 실현 양상이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하는 변화를 목격하고, 불안과 근심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산수 경물은 다시 시적 화자에게 美的 사유 대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얻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적 화자에게 자신의 理를 실현하는 일은 6수와 7수 초장의 표현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별개로 어렵기만 하다. 그 뜻이 하나로 수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 영역으로 옮겨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시적 화자는 자신의 理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갈등을 내부로 몰입된 시상 전개와 표현으로 나타낸다. 그 표현이 자신의 내부로 몰입돼 있으므로 자연히 주관적 감정의 표출이 두드러지고, 그 밀도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8수에서 시적 화자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의지를 표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出ᄒᆞ면 致君澤民 處ᄒᆞ면 釣月耕雲
明哲君子는 이를사 즐기ᄂᆞ니
ᄒᆞ물며 富貴危機ㅣ라 貧賤居를 ᄒᆞ오리라 (8수)

明哲君子는 벼슬자리로 나가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며, 물러나서는 달빛 아래 낚시하고, 구름 아래 밭 가는 것을 즐긴다. 초, 중장에서 표현하는 明哲君子의 理는 내적 갈등을 보이는 시적 화자가 실현해야 할 理와 비단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시적 화자가 이 둘을 함께 실행하는 것 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아직 그가 明哲君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장의 표현을 고려하면 8수의 해석은 明哲君子가 致君澤民과 釣月耕雲을 즐기는데, 더욱이 시적 화자가 '부귀를 위기로 여기고 빈천하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현재 자신이 明哲君子의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적어도 그 수준에 가까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기 위한 하나의 실천사항으로 부귀를 멀리하여 貧賤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76]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아 인식을 새롭게 했을 때, 貧賤居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산수 경물이 시적 화자의 美的 체험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8수에서의 의지 표명은 시적 화자의 자아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이는 9수의 시상 전개에 구체적인 변화로 확인된다.

靑山이 碧溪臨ᄒᆞ고 溪上애 煙村이라
草堂 心事를 白鷗ᄂᆞᆫ들 제 알랴
竹窓靜夜 月明ᄒᆞᆫᄃᆡ 一張琴이 잇ᄂᆞ니라 (9수)

靑山이 푸른 시냇물에 투영돼 있고 시냇가에는 안개에 희미하게 가린 마을이 보인다. 8수에서 貧賤居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청렴한 마음을 반영하듯, 시냇물에 맑게 비치는 靑山과 그 시냇가의 煙村의 모습은 고요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런 중에 草堂에 있는 시적 화자의 心事는 그 자신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1수~5수의 근심과 불안, 초조한 마음이었던 시적 화자가 6수, 7수에서 마음의 가닥을 잡기 시작해, 8수에 이르러 의지를 표명한 후에 오는 心事이니, 白鷗라도 그 생각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77]

시적 화자의 위와 같은 心事는 종장의 고요한 밤, 竹窓에 밝은 달빛이 비추고 一張琴이 놓여있는 공간적 배경을 형식미로 노래한다. 또한 이는 맑고 고요한 서정적 분위기 속에 거문고로 그 心事를 담아 노래함으로써 그 성정을 기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내용미로도 해석된다.[78] 따라서 시적 화자는 9수에서 자신의

76) 이러한 송암의 '貧賤居' 의지는 『閒居錄』에서 邵康節의 시 「安分吟」을 인용하면서 그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밝힌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분수를 알고 지키면서 살면 몸에 욕됨이 없고, 기미를 아니 마음이 절로 한가해져 塵世 속에서도 인간 세상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권호문 저, 권영락, 안정 옮김, 『송암집 2』, 도서출판 드림, 2016, pp.362-363 참고.)

77) 김상진은 3수의 魚鳥, 9수의 白鷗, 12수의 걸며기를 통해 작가감정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3수의 魚鳥는 부러움의 대상, 9수의 白鷗는 작가의 감정이 백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여유로움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12수의 걸며기는 오히려 작가를 따르려 하니 자연에 경도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상진, 「松巖 權好文 詩歌의 構造的 理解」, 『동아시아문화연구』 제18권, 1990, pp.48-49 참고.)

78) 권호문은 「獨樂八曲 幷序」에서, 노래는 근심에서 나온다는 옛 사람의 말을 들면서 이는 자신의 마음이 불평한 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뜻하는 바를 읊고 노래하여 性情을 기른다'는 朱文公의 말을 인용한다. (권호문 저, 황만기, 권영락 옮김, 앞의 책, pp.158-160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확고한 자아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로 몰입하던 경향을 벗어나 산수 경물로 그 시선과 정서를 이입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0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理를 추구하는 구체적 양상인 貧賤居를 산수에서 실천하며 獨樂의 詩境[79]을 구체화한다.

窮達 浮雲 ᄀᆞ치 보야 世事 이저두고
好山佳水에 노ᄂᆞᆫ ᄠᅳᆮ을
猿鶴이 내 벋 아니어든 어닉 분이 아ᄅᆞ실고 (10수)

貧窮과 榮達은 시적 화자에게 뜬구름과 같으므로 이를 통칭하는 世事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의 의식의 지향성은 好山佳水에서 '노ᄂᆞᆫ ᄠᅳᆺ'일 뿐이다. 이러한 獨善의 즐거움은 世事와 猿鶴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므로, 좋은 산과 아름다운 물가에서 노는 뜻은 오직 시적 화자만이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의 獨善은 獨樂의 詩境을 자아내는 端初가 되는데, 이러한 감흥은 마지막 수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은 好山佳水를 형식미로 포착하고, 이곳에서 노는 뜻을 窮達을 浮雲처럼 보는 내용미로 구성한다. 덧붙여 여기서는 이전에서 보였던 자아 인식의 혼재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그 표현 양상이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같이 담담한 수준으로 변화·안정된다.

독락의 시경을 노래하는 시적 화자는 11수~14수의 시상 전개에서 산수 경물을 통해, 티끌 없이 맑은 마음의 청정함을 발견하고 이에 합일하는 산수미를 형상화한다.

ᄇᆞ람은 절노 ᄆᆞᆰ고 ᄃᆞᆯ은 절노 ᄇᆞᆯ ᄯᅡ
竹庭松檻에 一點塵도 업ᄉᆞ니
一張琴 萬軸書 더옥 蕭灑ᄒᆞ다 (11수)

79) 손오규는 송암의 시가가 산수 경물에서 촉발되는 감흥을 중심으로 하여 노래한다기보다 獨善山林하는 자신의 志가 중심이 되어 산수 경물을 이끌어와 山水樂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송암의 산수락은 감성적 요소이면서도 그 의미차원은 산림처사가 표방하는 이념의 세계를 표상한다고 말한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301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수 초장의 바람이 맑고 달이 밝음은 각각의 理가 내재한 산수 경물 본성의 실현이다. 이러한 理를 발견하고 이해한 시적 화자의 마음은 중장의 竹庭松檻에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것에 견줄 수 있다. 따라서 종장의 一張琴과 萬軸書가 蕭灑한 것은 시적 화자 내부와 外境의 情景融化[80]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霽月이 구룸 쁠고 솔끗테 놀아올라
十分淸光이 碧溪中에 빗쪄거놀
어듸 인는 물 일흔 골며기 나를 조차 오는다 (12수)

12수의 霽月은 자신을 가리는 구름을 뚫고 그 맑고 투명한 빛을 '솔끗테' 걸린 채 碧溪에 비추면서, 투명하고 은은한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된다. 아마도 이는 시적 화자의 시선에서 비 개고 구름 걷힌 날 밤, 달이 소나무 가지 끝에 걸려 그 은은한 빛을 온 세계에 비추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수 경물의 理를 확인한 시적 화자의 獨樂의 경지는 종장에 무리 잃은 갈매기가 화자를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날이 져물거놀 ᄂᆞ외야 홀 닐 업서
松關을 닫고 月下에 누어시니
世上애 뜻글 ᄆᆞᄋᆞᆷ이 一毫末도 업다 (13수)

月色溪聲 어섯겨 虛亭에 오나놀
月色을 眼屬ᄒᆞ고 溪聲을 耳屬ᄒᆡ
드ᄅᆞ며 보며 ᄒᆞ니 一體淸明ᄒᆞ야라 (14수)

독락의 경지는 13수에 이르러 세상에 티끌 마음이 一毫末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시적 화자의 인욕과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는 14수에서 빈 정자에서의 달빛과 시냇물 소리가 뒤섞인,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 심상으로 표

80) 손오규는 栗谷의 山水詩에 나타난 情景融合에 대해 언급하면서, 산수경물들은 景이 情과 隆化된 의미차원으로 해석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pp.372-373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됨으로써 一體淸明함을 이룬다. 따라서 8수에서 貧賤居의 의지로 시작된, 자신의 理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식의 지향성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경융화하는 산수미로 형상화된다.

酒色 좃쟈 ᄒᆞ니 騷人의 일 아니고
富貴 求챠 ᄒᆞ니 뜯디 아니 가닉
두어라 漁牧이 되오야 寂寞濱애 늘쟈 (15수)

行藏有道ᄒᆞ니 ᄇᆞ리면 구테 구ᄒᆞ랴
山之南 水之北 병들고 늘근 날를
뉘라셔 懷寶迷邦ᄒᆞ니 오라 말라 ᄒᆞᄂᆞ뇨 (16수)

15수는 酒色, 富貴가 시인과 문사의 일이 아님을 말하면서 寂寞濱에서 늙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한다. 이는 앞서 14수까지의 시적 화자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재차 다짐하며 밝히는 것이기도 한데, 16수에서는 이러한 다짐의 목소리가 강한 어조로 드러난다.

즉, 行藏有道는 이미 出과 處 모두에 道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미 處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山之南과 水之北의 자연은 그 理를 궁구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환경이고, 이 환경 속에서 병들고 늙어가며 자신의 性을 다하는 삶은 懷寶迷邦이라는 지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깨달음이 종합되면서, 17수는 理一分殊의 세계를 이해하는 명증한 앎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노래한다.

聖賢의 가신 길히 萬古애 ᄒᆞᆫ 가지라
隱커나 見커나 道ㅣ 얻디 다ᄅᆞ리
一道ㅣ오 다ᄅᆞ지 아니커니 아ᄆᆞ 뒨들 엇더리 (17수)

시적 화자는 초장에서 성현의 길이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였다고 말한다. 이어 중장에서는 직접적으로 '隱하거나 見하거나 道가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종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이르러 一道의 추구를 자신의 理로 삼는 의식의 지향성을 구성한다.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은 이 노래의 초반에서부터 불안과 갈등을 겪던 시적 화자가 홀로 山水 속에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그 깨달음은 독락의 추구라는 의식의 대상 지향적 작용이 理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확인되면서, 결국 一道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산수 경물과 함께 貧賤居 하면서 얻은 이 一道의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산수미의 詩境으로 표현된다.

漁磯에 비 개거놀 綠苔로 독글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낙글 뜯을 어이ᄒᆞ리
纖月이 銀鉤ㅣ 되여 碧溪心이 줌겻다 (18수)

초장의 공간적 배경인 비 갠 漁磯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낚시를 하기 위해 碧溪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중장에서 종장으로 이어지는 시적 화자의 표현이다. 먼저 중장에서 시적 화자는 물고기를 헤아리면서 낚을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데, 이는 낚시터의 물고기를 헤아리면서 낚시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시적 화자에게 고기를 낚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綠苔로 돛 삼아 낚시를 하겠다는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낚시를 드리우고도 벽계의 물고기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데 집중한다면 과연 입질하는 물고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따라서 낚시를 하러 나온 이의 본성(理)은 물고기를 낚기 위한 내적·외적 조건을 갖추고, 온전히 그 일에만 몰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적 화자가 비 갠 맑고 깨끗한 낚시터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한 것에 대한 실마리는 종장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纖月이 銀鉤가 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가늘게 곡선을 그리는 초승달과 낚싯바늘의 시각적 심상이 서로 전이·중첩되고, 이 초승달이 낚싯바늘이 되어 碧溪心에 잠겼다는 표현은 함께 형식미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목적은 낚시가 아닌 嘗自然 통한 一道의 실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미는 낚시터의 산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경물과 정경융화하는 隱求之樂의 詩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수에서 확인한 이와 같은 詩境은 끝으로 19수에서 삶 일반을 觀照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자기 반성적 계기를 만든다. 그리고 끝내는 그 뜻하는 바를 노래함으로써 성정을 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

江干애 누어셔 江水 보는 ᄠᅳ든
逝者如斯ᄒᆞ니 百歲ᄂᆡ들 멷 근이료
十年前 塵世一念이 어름 녹듯 ᄒᆞᆫ다 (19수)

江干에 누워 江水를 보면서 그 흐름이 백년이 흘러도 그치지 않을 것임을 깨달으니, 이는 변하지 않을 理이자 그 본성의 실현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면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理와 본성에 주목하게 되고, 자신 또한 理一分殊의 세계에서 江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때, 10년 전 塵世一念이 얼음 녹듯 사라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거십팔곡」에 나타난 자아 인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가 주로 인식론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식의 다양한 대상 지향적 관계로 갈등하는 반면, 「한거십팔곡」에서는 심리적 차원에서 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작가의 개인사적 행보와 성리학자로서의 理想을 고려했을 때, 理의 추구 과정에 발생하는 심성론 차원의 불일치는 科擧之學과 性理之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재된 자아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적 화자의 혼재된 자아 인식으로 인해 작품의 중반부에 이를 때까지 시상 전개와 표현 양상은 자신의 내부로 몰입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8수에서 시적 화자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부귀를 멀리하여 '貧賤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8수에서의 의지 표명은 시적 화자의 자아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9수에 이르러 그 이전에 내부로 몰입하던 경향을 벗어나 산수 경물로 시선과 정서를 이입하는 시도를 보인다.

10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理이자 의식의 지향성인 貧賤居를 산수에서 실천하면서 그 獨樂의 詩境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의 獨善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독락의 시경을 자아내는 단초가 되고, 이러한 경지는 마지막 수까지 이어지며 이전에서 보였던 요동치는 내적 갈등이 가라앉는다.

17수에서는 이러한 시적 화자의 모든 체험과 감정들이 종합돼 하나의 깨달음으로 담담하게 표현되는데, 즉 隱하거나 見하거나 道가 다르지 않은 '一道'의 추구로 표현된다. 이렇게 一道로 수렴되는 理一分殊에 대한 명증한 앎은 시적 화자의 자아 인식을 명료히 하고, 마침내 18수에서 산수 경물과 情景隆化하는 隱求之樂의 詩境으로 표현된다. 은구지락의 시경은 19수에서 삶 일반을 관조·통찰하는 자기반성적 계기를 만들면서 시적 화자의 塵世一念을 얼음 녹듯이 사라지도록 만든다.

3. 산수은거와 道의 실천

이상에서는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이 지향하는 바인 理一分殊의 명증한 앎을 이해·실천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정신적 가치 지향과 시상 전개 양상에 대해 다뤄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전자의 유기체적 산수관과 후자의 자아 인식의 확립을 통해, 형식미와 내용미가 결합된 산수미의 독특한 시경으로 각각 형상화되었다.

두 노래의 시경과 시상 전개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과 이념적 속성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러한 결과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가가 성정을 표현하고, 순화하는 데 일정 부분 관여한다는 퇴계와 송암의 시가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감발융통'과 '감발흥탄'으로 대표되는 두 성리학자의 생각은, 성정을 다스려야 하는 당위로서의 '이성'과 그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성'의 조화와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두 노래의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본성의 조화와 균형적 성장은 산수은거와 道의 실천 결과로서 완성됨을 알 수 있다. 즉, 산수은거를 통한 道의 실천은 형이상학적이면서도 매우 추상적인 가치이지만, 학문에서는 진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윤리이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완성의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81] 그러므로 노래에 담긴 본성의 실현과 자기 완성의 이상이라는, 가치 지향적 美의 추구 양상은 문학교육적으로 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두 작품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자기실현의 양상, 즉 '자아실현의 욕구와 세계와의 조화'의 과정적 양상은 서로 상이하다. 이 상이한 양상은 학습자에게 이상과 현실, 주체와 타자 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삶의 태도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시적 화자는 嘗自然 하면서 깨닫는 보편적 理를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산수은거와 도의 실천에 담긴 함의가 무엇인지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는 시적 화자가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실현 의지와 상충하는 세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주체가 세계에 의해 제한·통제되는 것을 보며, 이상보다는 현실에 순응해야 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자신의 한계와 본성을 깨닫고 세계의 질서 안으로 들어설 때, 역설적이게도 주체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를 최대로 실현하며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작품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전시가의 학습 당위와 현재적 의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81)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退溪·松巖 詩歌의 자기실현적 가치 지향과 문학교육

이 장에서는 Ⅲ, Ⅳ장에서 확인한 퇴계·송암 시가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학습자 수준에서 체험·감상하는 데 적절한 수업 모형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에 덧붙여, 고전시가와 학습자 사이의 시·공간적 괴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합적·유기적·동적 구조인 삶 속에서 각자의 지향과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체적 개인이라는 사실 때문이고, 그러한 주체적 개인의 자기실현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시가이기 때문이다.

1. 문학 제재로서의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

삶에서 '問題'는 누군가에게 의문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으며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가 갖는 이런 다양한 측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즉 의식의 차원에서 이것이 지각될 때 그 성격이 파악된다. 자세히 돌이켜보면, 문제의 성격은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고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 이전과 같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우리는 왼발과 오른발의 움직임을 의식·통제하면서 걷지 않으며,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도 문고리를 잡는 손의 움직임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의 인식에 이런 것들이 포착되는 경우는 산책을 하려는 데 발목이 갑자기 시큰하다던가,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시가를 접하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과연, 작품이 '問題'가 될 만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고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가가 실제로 이들에게 어떠한 호기심, 적어도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의식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전을 교과 교육의 일부 혹은 '교양 쌓기'라는 명목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이 문학사의 보편적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의문이자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고전의 '보편적' 문제의식이라는 속성이 현재의 우리가 겪어봄 직한 일들을 다루고 있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사의 문제의식이 보편적인 것을 다루었다는 점은 시간의 변천에 두루 통하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고전은 우리가 공감할만한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것은 여전히 현재의 삶의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의 문제의식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적·문화적·환경적 차이가 큰 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반문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그에 대한 답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인 희망을 말한다면, 고전시가는 예술이기 이전에 '문화(文化, culture)'라는 인식과 그러한 지표를 투철하게 지향하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교육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에 대한 정의며 연구의 관점에 대한 장황한 논의를 전개하는 대신 '공유할 삶의 방식'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허망한 집단으로 변화하는가에 주목해 주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가 설명한 대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존재동기(Being Motivation)가 바로 자기실현의 단계라는 점,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지식과 미(美)라는 요소에 관계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하여 많은 시사를 던진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고전시가가 개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 사회가 공유해야 할 지식과 미를 추구하는 문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역사철학자 오우크쇼트(Oakeshott, M.)가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기획한다는 점이 분명한 이상 고전시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녀야 할 과거 혹은 전통의 축일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본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앎이 바로 옛사람들이 이미 노래했던 고전시가의 그것이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은 고도의 긴장으로 응축된 고전시가가 일러주는 인간의 모습을 해명하는 데 노력이 모아져야 옳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는 인간다움의 문화적 공유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둔다.[82]

이상과 같이 고전의 학습 당위를 한 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삶과 경험', '문화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쉽게 체감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당위를 현재의 일상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가깝게 들여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것들을 우리의 구체적 삶 어느 한 부분에 관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공유할 문화이자 가치로서 고전시가와 현재 우리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을 발견하려면 어떤 측면에 더 집중해야 할까?

문학을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 지식, 미의 관점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을 사유한 주체로서 '인간'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전시가를 포함한 고전이 현재에도 유효할 가능성은 비록 사회·문화·시대가 다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자 한, 인간의 고뇌가 작품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삶과 인간을 둘러싼 갈등과 고뇌는 여전히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 본질적 문제는 다름 아닌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자 가치 추구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고, 현대 사회가 야기하는 많은 문제 또한, 이 범위 안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방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과 삶에 대한 가치 추구의 문제는 인문학적 소양과 별개일 수 없고, 고전이 그러한 인간과 삶을 제재로 삼고 나름의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은 현재의 학습자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퇴계·송암의 시가를 해당 시대를 살아왔던 한 인간의 치열한 자기 추구의 과정과 결과로 이해한다면, 학습자는 작품에서 그 문학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

82) 김대행, 앞의 논문, pp.12-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

앞 절에서는 문학 제재로서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고전시가의 학습 당위를 '자아실현의 욕구과 세계와의 조화'라는 인간의 치열한 자기실현의 과정·결과로 보고, 이것이 현재의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함을 밝혔다. 그러나 그 유효한 정도를 추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명료하지 못한 당위로만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근원적·가치 지향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론적 탐구의 시도로, '哲學'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학이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다룬다는 점은 어원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어로 'philosophia'인 철학은 '사랑'을 뜻하는 'philos'와 지혜를 뜻하는 'sophia'가 합쳐진 것으로, 이 어원을 고려했을 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며, 그를 위해 세상과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83]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가 고전시가를 문학사의 보편적인 문제의식인 인간과 삶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어떤 탐구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의 가능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매튜 립맨(Matthew Lipman)이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위해 제시한 개인의 '탐구'와 '공동체'의 상호작용 모두를 중시한 수업 모형으로,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립맨이 말하는 고차적 사고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80년대 미국의 교육 근본주의자들의 기존 교육 제도가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84] 이 지적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실제로 별다

83)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 『생각하는 교실, 철학하는 아이들』, 맘에드림, 2019, p.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른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리킨 것이지만,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시대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지식의 가치가 퇴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존 교육에 대한 두 가지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주입'이라고 생각한 데 있다.

이후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와 브루너(Jerome Seymour Bruner)로 대표되는 사고력, 인지기술, 메타 인지에 대한 관심은 이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립맨이 말하는 고차적 사고력의 일부인 비판적 사고력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초기 관심은 로이스(Josiah Royce)로부터 시작되어, 미드(George Herbert Mead)로 이어지며 '자아', '공동체', '탐구'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다. 이후 듀이(John Dewey)는 개인의 '탐구'와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지금의 비판적 사고력의 선구가 되었다. 이 비판적 사고와 응용철학과의 관계에서, 앞서 언급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는 교육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의 주입'이 아닌 사고력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지식을 탐구하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철학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심리적 한계를 인식·확장시킬 수 있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런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85] 립맨은 이 탐구공동체의 특성이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에 있고, 교실 탐구공동체의 탐구 목적은 절대적 지식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탐구 과정에는 자기 수정과 배려적·창의적 차원의 균형이 갖추어진다.[86]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레 립맨이 말한 고차적 사고력의 증진을 수반한다. 고차적 사고력이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배려적 사고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합당한 이해력

84)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2005, p.51.
85)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 앞의 책, pp.31-33.
86)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앞의 책, pp.257-2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판단력'인 비판적 사고력,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도전'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력, '윤리적 지성'인 배려적 사고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87]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다음의 활동을 거쳐 교과 지식을 탐구하게 된다.

1. 교재 읽기
2. 토론주제 만들기
3. 공동체 다지기
4. 연습문제와 토론계획 활용하기
5. 심화반응 고무시키기[88]

각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정리해보면, 우선 교재 읽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책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교대로 읽거나 분배하여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탐구공동체로서 일종의 공유감을 느끼면서, 주의 깊게 듣고 정밀하게 사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토론주제 만들기 단계에서는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최초 반응을 담은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개인 → 모둠 → 전체'의 순서로 질문을 정리한다. 이 순서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개인적인 궁금증을 모둠과 상호작용하면서 확인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질문을 분류·선택한다.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할 주제를 선정할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는 질문과 토론주제의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해 연속(follow-up)질문함으로써 그 의도와 동기를 명료히 한다.

공동체 다지기 단계에서는 공동체가 대화적 토론을 하게 되는데, 선정된 토론주제를 제안한 모둠의 설명을 듣고 시작한다. 탐구공동체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결속하게 되고, 협력적 추론에 동참한다. 논의가 이끄는 대로 다양하게 토론이 전개되면서도 교사는 대강의 탐구 방향을 조율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유와 선택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87)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 앞의 책, pp.35-36.
88)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앞의 책, pp.142-1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습문제와 토론계획 활용하기 단계는 실제적인 판단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문제에 집중한다. 즉 공동체 다지기 단계에서 다룬 문제에서 확인되는 진리, 공동체, 사람, 인간성, 정의, 선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탐구를 이 단계에서 시도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토론과 방향이 맞지 않거나 다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심화반응 고무시키기는 개인 혹은 공동체적으로 비판과 창조를 통합하는 활동을 한다. 교사를 포함한 탐구공동체가 토론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던 의미 획득 과정을 서로 격려하고, 이 단계에서 학생은 이야기, 시, 그림 그 외의 인지적 표현활동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수업 절차는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 탐색·탐구 과정에서 사회적 일체감을 얻고, 인지적 절차에 참여하며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의의는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 교육현장이 추구했던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반문을 피할 수 없다. 즉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산출되는 지식이 과연 올바르고 유의미한 지식이 될 수 있을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그 자체로 검증받고 의미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지식을 교사의 지도를 통해 학습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승인을 거쳐 그것을 외부의 고정불변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학습 주체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러한 지식이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공유·전승될만한 당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학습 주체의 탐구로 발견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학습자에게 유효하고 생생한 지식으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는 지식의 필요에 대한 학습자의 회의적 태도와 공교육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은 위와 같은 지식의 주입 현상에 따른 학습 주체의 수동적 경향을 막고, 주체적·능동적으로 교과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교과 수업에 이 모형을 적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판단된다. 우선 문학 장르 특성상 그 제재와 주제가 인간과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철학이 삶과 관련된 근원적 앎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체험·감상하는 데 그러한 철학적 탐구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전시가는 왜 읽는 것일까?',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등의 질문은 작품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포함한 구체적 감상과 학습자의 사고 등을 필요로 하는 근원적 앎을 요구하므로,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교과 수업에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토론이라는 대화적 탐구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89], 비판적·창의적·배려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모형의 수업에서 교사는 안내자이자 조력자, 탐구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들이 정한 토론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대화에 참여한다. 이는 문학 수업에서 다루는 인간과 삶에 대한 가치, 의미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탐구공동체가 되어, 대화하고 판단 내림으로써 합당화 과정을 거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문학 교과에서 다루는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 갈등과 고뇌를 공동체 수준에서 위와 같은 모형을 적용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문학 작품을 통해 개인의 삶과 인간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성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의사를 교환하는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상에서 보았던 진정한 의미의 교과 지식 탐구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춰 바람직한 인재가 되는 것에도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해, 비단 교과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계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세계적 변화와 맞물리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결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

89) 립맨은 탐구공동체가 비경쟁적 토론과 다른, 공유되고 협력하는 탐구를 강조한다고 한다.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러 의견을 중재해주기도 한다. 가설을 세워 더 진전된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에 반박할 수 있다.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앞의 책, pp.167-168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바 있듯이 지식은 고정된 것, 확정된 것으로서 자료처럼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다. 개인의 지식은 그 양과 질로 따져보았을 때, 서버에 저장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적고 정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은 각종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90]

둘째, 위와 같이 사회의 변화가 개인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기존 사회가 갖는 문제점에 따른 대응으로 '공동체'를 강조하게 된 측면이 있다. 현재에도 그 영향력이 여전한 자유주의의 문제는 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에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사회·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과 관련됨으로써,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이해하고, 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교육상황은 모종의 포괄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교육관으로 자유주의와 대립쌍을 이루는 '공동체' 교육에 주목하게 된다.[91]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 수준의 변화·적응이 요구된다는 점은 실제로 세계의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례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역량의 신장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

90) 강기수, 앞의 논문, p.2.
91) 박선영, 김회용, 앞의 논문, p.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92]

이상과 같이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총 6가지며, 이 핵심역량의 내용과 연계하여 각 교과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총론의 핵심역량은 다시 철학적 탐구공동체가 지향하는 고차적 사고력과 일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있는 것들의 관계를 서술하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비판적 사고',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배려적 사고', '창의적 사고 역량-창의적 사고'로 나타낼 수 있다.[93] 이처럼 고차적 사고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의 신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 교과의 수업 설계에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모형의 필요성 및 교과 수업 적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탐구공동체가 함께 '철학함'으로써 교과 지식에 대한 근원적이고 합당한 앎을 대화적 토론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합당성을 각각 사회구조와 인성구조로 하는 탐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4]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시대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고차적 사고력은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철학적 탐구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된다.

---

92)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2018, p.2.

93) 박상욱은 핵심역량의 신장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사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 앞의 책, pp.51-53 참고.)

94)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앞의 책, p.33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문학 교과 수업에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고전시가가 다루는 문학사의 보편적 문제의식이 인간과 삶이라는 철학적 탐구 영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이 영역에 대해 함께 대화·토론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작품을 대상으로 탐구공동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3.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수·학습 지도안 구안

앞에서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여, 퇴계·송암 시가에 담긴 자기실현적 가치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인 『문학』과 『고전 읽기』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95] Ⅳ장에서 확인한 두 작품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두 교과의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을 비교하여, 관련된 것들만 선별하여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96]

교과명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문학	문학의 본질	• 언어 예술 • 진·선·미	•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	• 인간과 세계의 이해 • 삶의 의미 성찰 • 정서적·미적 고양
	문학의 수용과 생산	• 문학 능력 • 문학문화 • 작가와 독자	•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생산하며	• 작품의 내용과 형식 • 작품의 맥락 • 문학과 인접 분야

95) 공통 과목인 『국어』를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어』의 5개의 하위 영역 중 문학 영역에서만 고전시가를 다룰 수 있으므로, 교과 운영상 선택 교과만큼 심화해 다룰 수 없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96) 교수·학습지도안의 의도와 맞도록 『문학』과 『고전 읽기』의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중 일부를 편집, 인용하였다.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2015, pp.122-178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 • 문학의 확장	문학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이다.	• 작품의 수용과 소통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문학과 매체
	문학에 대한 태도	• 자아 성찰 • 타자의 이해와 소통 • 문학의 생활화	• 문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 자아 성찰, 타자 이해 • 공동체의 문화 발전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과명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고전 읽기	고전의 가치	• 고전의 지혜 • 성찰적 독서	• 고전은 인류 공통의 지혜를 담은 가치 있는 글이다. • 고전 읽기는 고전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행위이다.	• 고전의 특성 • 고전 읽기의 중요성
	고전의 수용	• 정전으로서의 고전 • 고전과 교양	• 고전은 시대, 지역, 문화,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다. • 고전은 재해석과 비판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 • 고전 읽기는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과 교양 형성에 기여한다.	• 고전의 다양성 • 고전을 통한 자아와 세계의 이해 • 고전에 대한 가치 평가 • 고전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고전과 삶	• 고전과 인성 • 고전 읽기의 생활화	• 고전 읽기를 생활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고전 읽기의 생활화와 인성 함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고전01-01] 고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2고전02-02] 시대, 지역, 문화 요인을 고려하며 고전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자아와 세계를 이해한다.
[12고전02-03]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을 재해석하고 고전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12고전02-04]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양을 함양한다.

『문학』과 『고전 읽기』의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는 각각 다르게 서술되었다. 그러나 작품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서 수용·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취 기준도 이 내용체계를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특성을 작가와 시대,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현재의 맥락에서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재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덧붙여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자아 성찰, 상호 소통의 태도를 기르는 데도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분석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는 이를 반영한 수업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총 6가지의 핵심역량을 고루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97]

이상에서 작품의 특성에 맞는 교과를 선정하고 해당 교과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재구성함으로써, 핵심역량의 고른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 구안의 기본 작업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적용한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교수·학습지도안의 세안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세안의 구성에 대단원명이나 소단원명은 각 교과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고, 총 3차시로 구성하였다. 이 3차시의 구성은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해', '시적 화자의 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와 작품의 재해석'을 학습 목표로 하였다. 각 차시의 전개 단계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의 절차를 따랐다.

97) 『문학』, 『고전 읽기』 교과에서 선별한 각각 4가지인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근거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able>
<tr><th colspan="4">교수·학습 지도안</th></tr>
<tr><td rowspan="2">학습
목표</td><td rowspan="2">1.「도산십이곡」과「한거십팔곡」을 읽고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2. 자신의 관점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다.</td><td>차시</td><td>1/3</td></tr>
<tr><td>학습 형태</td><td>개별 학습
모둠 학습</td></tr>
<tr><td>단계
(시간)</td><td>학습
내용</td><td colspan="2">교수·학습 활동</td></tr>
<tr><td></td><td></td><td>교사</td><td>학생</td></tr>
<tr><td rowspan="2">도입
(5분)</td><td>수업준비
(3분)</td><td>- 산, 계곡, 바다, 하늘 등 자연 풍경이 담긴 1분가량의 영상을 보고 그 느낌을 학생들과 나눈다.

“영상 속 자연 풍경을 보니 느낌이 어떤가요?”

“영상에 담긴 자연 속에서 방학을 보내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영상 속의 풍경 같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td><td>- 교사의 발문에 관련 경험을 이야기한다.

“조용하고 여유로워 보여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요.”

“바쁘시다고 해요.”, “시원하고 조용한 계곡으로 가자고 하실 것 같아요.”</td></tr>
<tr><td>학습목표
제시
(2분)</td><td>-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와 고전시가의 시적 화자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가 다름을 밝히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습 목표를 읽는다.</td><td>- 교사를 따라 학습 목표를 읽는다.</td></tr>
<tr><td>전개
(40분)</td><td>교재
읽기
(10분)</td><td>- 한자어 풀이가 포함된「도산십이곡」과「한거십팔곡」 전문을 나눠주고, 한편씩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전원이 한번씩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건너 띄기, 다시 돌아가기 등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준다.</td><td>-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자유롭게 시를 읽고, 궁금한 내용,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표시한다.</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교재를 읽고 나서 궁금한 내용,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모둠별 질문 만들기 (15분)	- 학생별로 궁금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둠별로 모아 정리하고, 서로 협력하여 탐구한다. - 탐구한 내용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내용,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선별하여 포스트잇에 정리한 후 칠판에 붙인다. * 모둠 별로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면 교사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분류한다.	- 교사의 지도에 따라 모둠별로 탐구한 결과를 포스트잇에 정리한다. "「도산십이곡」의 전일곡에서 시적 화자는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겠다는 걸까?" "「한거십팔곡」의 4수에서 시적 화자는 왜 강호와 성주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까?"
	모둠별 질문에 대한 토론 (15분)	- 분류한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5분)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개입하는 것을 줄인다. (부족한 정보 보충, 분명하지 않은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기) "이 포스트잇에는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가 왜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겠다고 하는지 묻는데, 혹시 이야기 해볼 사람이 있나요?" "계곡에 난초가 있고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 게 여러분에겐 즐거운 일인가요?"	-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조용하고 여유로워서요." "전사곡에 보니까 계곡에 난초가 있고 구름이 산에 있어서 자연이 좋다고 했어요." "아니요, 당연한 일 같은데 왜 기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난초나 산이 시적 화자에겐 좀 특별한 의미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왜 난초나 산이 시적 화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걸까요?” “다른 포스트잇에는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가 강호와 성주 사이에서 왜 고민하는지 묻는데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해도 될텐데 왜 시적 화자는 고민을 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전육곡에 봄바람에 꽃이 온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臺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계절의 흥이 사람과 같다고 한 걸 보면 이런식으로 뭔가 숨겨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강호에 살면서 성주를 모시면 안 돼요?” “강호에 가면 즐거운데 그러면 성주를 모시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정리 및 평가 (5분)	**학습내용 정리 (4분)**	- 토론 과정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한다. “오늘 우리는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에 대한 …등의 질문을 확인 하고 이야기 해봤어요…”	- 교사의 내용 정리를 듣고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학습 예고 및 인사 (1분)	- 다루지 못한 질문지 및 토론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고, 투표를 통해 하나의 토론 주제를 선택함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	1.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시적 화자의 해결방법을 말할 수 있다. 2. 자신의 관점에서 시적 화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다.	**차시**	2/3
		학습 형태	개별 학습 모둠 학습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사	학생
도입 (5분)	수업준비 (3분)	-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학습 목표와 관련 짓는다. "아침에 등교하려고 일어날 때 쉬웠나요?" "그런데 왜 일어났나요?"	- 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한다. "아니요, 더 자고 싶었어요."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혼나요"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러 오려고 참고 일어났어요."
	학습목표 제시 (2분)	- 선택과 책임의 연장선인 삶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도 형상화됨을 알려주며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교사를 따라 학습 목표를 읽는다.
전개 (40분)	토론 주제 다지기 (10분)	- 이전 차시에서 분류한 포스트잇 질문 가운데, 토론 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을 다룬다. - 질문들을 모두 다루고 난 뒤, 구성원 전체가 토론할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다. * 중복투표가 가능한 거수 투표 또는 제비 뽑기 등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한다.	-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투표한다.
	공동체 다지기 (30분)	- 투표로 선정된 토론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토론 주제를 작성한 모둠의 대표로부터 듣는다. "이 토론주제를 작성한 모둠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저희 모둠이 선택한 주제는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가 자연에 살고자 하는 것은 현실 회피인가, 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닌가?'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 배경 설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토론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현실 회피라고 한다면 일부러 피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자연은 사회와는 동떨어진 곳이고 그곳과 떨어져 자신 혼자만 즐기면서 산다는 태도가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네 그럴수도 있겠군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가 물론 자연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허물이 없이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거지, 책임을 피하거나 숨거나 하는 행동 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네."
정리 및 평가 (5분)	**학습내용 정리 (4분)**	- 토론 과정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한다. "오늘 우리는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가 겪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이해하고, 토론 주제를 정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교사의 내용 정리를 듣고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학습 예고 및 인사 (1분)	- 작품이 지어진 시대·문화·지역적 배경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상을 더해 재해석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able>
<tr><th colspan="4">교수·학습 지도안</th></tr>
<tr><td rowspan="2">학습
목표</td><td rowspan="2">1.「도산십이곡」과「한거십팔곡」이 지어진 시대·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적 화자가 겪는 갈등과 대응 방식을 재해석할 수 있다.
2. 작품에 대해 감상을 토론주제와 관련지어 한 편의 글로 표현할 수 있다.</td><td>차시</td><td>3/3</td></tr>
<tr><td>학습 형태</td><td>개별 학습
모둠 학습</td></tr>
<tr><td>단계
(시간)</td><td>학습
내용</td><td colspan="2">교수·학습 활동</td></tr>
<tr><td></td><td></td><td>교사</td><td>학생</td></tr>
<tr><td rowspan="2">도입
(5분)</td><td>수업준비
(3분)</td><td>- 이전 차시에서 다룬 시적 화자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착시를 유발하는 그림을 예로 들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자유로운 대답을 유도한다.

“어떤 선이 더 길어보이나요?”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td><td>- 교사의 질문에 따라 자유롭게 대답한다.</td></tr>
<tr><td>학습목표
제시
(2분)</td><td>- 작품이 지어진 시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해석과 감상에 또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학습목표를 함께 읽는다.</td><td>- 교사를 따라 학습 목표를 읽는다.</td></tr>
<tr><td>전개
(40분)</td><td>연습문제와
토론계획
활용하기
(20분)</td><td>-「도산십이곡」과「한거십팔곡」이 지어진 때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사회 질서로서 성리학의 의의)에 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공동체가 함께 읽는다.
* 읽은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확인하고 설명한다.

“자료를 읽고나서 궁금한 점</td><td>“성리학자들은 과거에 합격해</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성리학은…” - 읽고 난후 이전 차시의 토론주제와 연결 지어 자유롭게 대화한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니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성리학자들이 지키고자 한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의 토론 주제로 돌아와서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시적 화자가 자연에 살고자 하는 것은 현실 회피일까요?”	서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했나요?”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도 성리학자들의 본분인가요?” “성리학자들은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진 선한 본성을 믿고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에겐 좀 와닿지 않은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쉬면서 공부도 하고 경치도 즐길 수 있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현실 회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피였다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을 선택했으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심화반응 고무시키기	- 토론주제에 대한 공동체의 탐구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분)	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토론을 마친다. - 총 3차시에서 진행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주제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작성한다. * 양에 상관 없이 생각을 담아내도록 격려한다.	
정리 및 평가 (5분)	학습내용 정리 (4분)	- 총 3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 교사의 내용 정리를 듣고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학습 예고 및 인사 (1분)		

총 세 개의 차시로 진행되는 위 수업에서 차시별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시에서 작품을 읽을 때 교사는 전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습 제재 내용에 대한 집중, 이해의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함께 작품을 나누어 읽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동체의 일체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개인 및 모둠 활동시 작품 내용의 이해와 관련한 어구 풀이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므로, 학습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개입을 줄인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현재의 자신과 공동체의 관점을 통해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2차시에서 교사는 정해진 토론주제에 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유도하고 불분명한 의견을 명료화함으로써, 탐구공동체가 토론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질문의 수준과 내용에 개의치 않고 학습자 또는 모둠 간 토론을 통해 해당 토론주제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다만 교사는 이 토론이 찬반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승패를 다투는 분위기가 아닌, 대화적 토론으로서 진영과 관계없이 서로의 궁금한 점과 문제점을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탐구공동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시적 화자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나름의 합당한 해석을 내리고자 노력하게 된다.

3차시에서는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전 차시 학습자 간 토론을 통해 유력했던 의견과 생각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환의 계기에서 교사는 학습자 간 의견 변화의 조짐을 읽고, 공동체 다수의 의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혹은 선입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점의 변화를 유도한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차시 후 개별 논평의 작성은 글 전체의 논리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분량으로 서술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각 차시별로 과제 수행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작, 배포하여 개인 논평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과정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구성원이 수업 절차에 대해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98] 또한, 교사는 이 모형을 수업에 활용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문답식 토론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화적 토론·탐구의 흐름이 학생 위주로 전개되는 수업에서 교사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방향을 온전히 탐구공동체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이 과연 학생에게 유의미한 수업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이 지식의 주입에 치중해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의 핵심은 유의미하고 확실한 지식의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사고의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지향하는 이 모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탐구공동체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적 영역, 즉 감

98) 강기수, 앞의 논문, pp.11-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적 측면은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당성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합당성이 갖는 절차적 당위의 함의는 공동체의 도덕적 자기 비판과 수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감정적·배려적 사고가 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탐구는 가치 지향적인 요소를 잃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아래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 감정적인 준거 틀은 평가적 판단뿐만 아니라 분류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정은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징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작은 다이얼 하나가 희미한 텔레비전 화면을 선명하고 명료하게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적 영역의 패턴들이 세상에 대한 판단과 그런 판단의 정당화를 조절해 준다. 비판적 사고에서조차도 엄밀함, 진지함, 일관됨, 효율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요구에 맞추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이 분리되어 별개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99]

따라서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에서 교육의 방향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즉 배려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배려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것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적인 측면, 즉 비판적 사고력의 영역과 다시 연관되기 때문이다.

99)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 앞의 책, p.17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結論

본 연구는 退溪·松巖 詩歌의 山水美가 함의하고 있는 自己實現的 가치 지향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다루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두 시가의 현재적 의의를 발견하는 데 주목하여, 1차적으로 퇴계·송암 시가의 학문적 배경인 성리학을 현상학과의 간학문적 탐구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두 학문 사이의 상보적 관계와 공통적 지향이 두 작가의 시가 작품에 반영돼, 자아와 세계를 합리적·이성적으로 인식하고 그 깨달음을 다시 실천 영역으로 이행하는 가치 지향적 美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 지향적 美는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인 理性과 感性을 균형있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실현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다룬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제언할 내용을 덧붙여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Ⅱ장의 退溪·松巖 漢詩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에서는 退溪·松巖의 한시 작품에 형상화되는 山水美의 발생에 理一分殊와 의식의 지향성 개념을 적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고 그 가치 지향적 美意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두 작가의 미의식과 가치 지향적 특성을 '感發融通'과 '感發興嘆'으로 정리하였고, 이 두 가지 특성은 시가를 통해 성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퇴계·송암의 성리학자로서의 美的 감흥의 표현이자, 本然之性의 추구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Ⅲ장의 退溪·松巖 時調의 山水美와 現象學的 이해에서는 Ⅱ장에서 확인했던 한시 작품의 美的 특성을 바탕으로, 연시조 「陶山十二曲」과 「閑居十八曲」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도산십이곡」의 시적 화자는 주로 理에 대한 認識論的·理氣論的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식의 대상 지향적 관계로 갈등하는 반면, 「한거십팔곡」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적 화자는 心理的·心性論的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陶山十二曲」에서 확인되는 유기체적 山水觀, 「閑居十八曲」에서는 자아 인식의 확립의 과정을 통해 극복된다.

이처럼 두 노래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理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산수은거를 통한 道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이 방법은 시적 화자에게 인간 본성 실현이자 자기실현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두 노래에 담긴 美意識의 가치 지향은 자기실현적인 성격을 띤다.

Ⅳ장의 退溪·松巖 詩歌의 自己實現的 가치 지향과 문학교육에서는 퇴계·송암 시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가치 지향적 미의식을 학습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습 당위와 수업 모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전의 학습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현재와 二元化된 것이 아닌 현재의 삶에도 유효한 인간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그 당위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삶을 다룬다는 데서 고전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탐구로서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요구하는 哲學의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전의 학습은 철학적 관점에서 교과 지식의 근원적 앎을 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학습 모형의 적용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며, 그 의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합당성과 민주주의'라는 구조적 기반을 체험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여 「도산십이곡」과 「한거십팔곡」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시적 화자의 처지와 상황,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의 비판적 이해',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와 작품의 재해석'을 목표로 하여, 3차시로 구성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性理學과 現象學이라는 동·서양의 다른 사유체계를 접목하여 작품 분석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로 확인되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美이자 현재적 의의로 학습자에게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본 연구의 작품 분석 방식이 새로운 측면이 있고 나름의 논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의 결과는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수업 모형의 적용에서도 모형의 특성상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담아 시연하는 과정을 보여야 하는데, 지도안에는 불가피하게 예측·구성된 상황을 대상으로 작성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작품 분석 방법과 수업 모형 모두 누적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1. 자료

교육부,「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2018.

權好文,「獨樂八曲 幷序」,『松巖續集』卷6.

李滉,「陶山十二曲跋」,『退溪先生文集』卷43.

2. 단행본

강신주,『철학 VS 철학』, 그린출판사, 2010.

권순회, 이상원, 신경숙,『청구영언 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권호문 저, 안정 옮김,『송암집 1』, 도서출판 드림, 2015.

_____, 권영락, 안정 옮김,『송암집 2, 도서출판 드림, 2016.

_____, 황만기, 권영락 옮김,『송암집 5』, 도서출판 드림, 2018.

김낙진 외 7인,『교육과 성리학』, 학지사, 2017.

김승찬 외 3명,『韓國文學槪論』, 삼지원, 1995.

매튜 립맨 저, 박진환, 김혜숙 옮김,『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2005.

박이문,『현상학과 분석철학 : 후설, 하이데거, 샤르트르, 메를로-퐁티, 무어, 러셀, 카르납, 비트겐슈타인』, 知와사랑, 2007.

손오규,『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_____,『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_____,『조선조 士林과 산수문학』,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_____,『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윤사순,『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나남출판, 2006.
_____,『한국유학사 상 -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 지식산업사, 2012.
이경숙,『생활지도와 상담』, 정민사, 2017.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 :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이동희,『주자학 신연구』, 문사철, 2012.
이종훈,『후설의 현상학과 현대문명 비판』, 한국학술정보, 2014.
피에르 테브나즈 저, 김동규 옮김,『현상학이란 무엇인가 :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그린비출판사, 2011.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생각하는 교실, 철학하는 아이들』, 맘에드림, 2019.

3. 학위논문

고은,「문·이과 통합 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 방안 연구 : 과학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7.
김민지,「退溪 <陶山十二曲>의 性情美學 硏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2.
류연석,「내러티브 구성을 통한 시조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8.
박정민,「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신명녀,「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국어』교과서의 고시조 수용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9.
정영옥,「고등학교 고전 교육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6.
권영화,「주자와 양명의 심론 연구 - 심의 현상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명희,「시교(詩敎) 전통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3.
이호중,「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한 논술교육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12.

5. 학술지

강기수,「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교육사상연구』 제19집, 2006.
고정희,「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고승관,「權好文 詩歌에 형상화된 獨樂과 處士文學」,『退溪學論叢』 제32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김대행,「고전시가 연구와 교육의 지표」,『한국시가연구』 제38집, 한국시가학회, 2015.
김문기,「權好文의 詩歌 硏究 - 閑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한국의 철학』 제1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6.
김병국,「송암 권호문 시가의 미적 특질」,『韓國詩歌硏究』 제19집, 한국시가학회, 2005.
김상진,「松巖 權好文의 <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韓國詩歌硏究』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
_____,「松巖 權好文 詩歌의 構造的 理解」,『동아시아문화연구』 제18권, 1990.
노명환,「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역사학연구』 제65집, 호남사학회, 2017.
박선영, 김회용,「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구성방법 : 대화(Conversation)와 내러티브(Narrative)」,『교육철학』 제49집, 2010.
성기옥,「陶山十二曲의 재해석」,『진단학보』 제91호, 진단학회, 2001.
손오규,「陶山十二曲의 山水美」,『退溪學論叢』 제11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0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수엽,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 - 「처용가」를 중심으로」, 『國語敎育硏究』 제53집, 2018.

오창진, 김희용, 「배움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육방법론 개선방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5권 3호, 2010.

유권종, 「儒敎的 成就에 관한 現象學的 이해를 위한 시론 - 위기지학적 성취의 실질에 관한 접근법」, 『철학탐구』 제4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6.

육민수, 「한국고전시가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기대지평」,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한국한문학회, 2015.

하윤섭, 「'행위자의 귀환'과 송암 시가의 재해석」, 『민족문화연구』 제71호, 2016.

황병익,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_____, 「<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Ⅱ」, 『한국학』 36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Natural Beauty and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oegye·Songam's Poetry

Eom, Jun-yeok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self-realistic value orientation and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natural beauty(山水美) in Toegye·Songam's poetry. And,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y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 philosophical community of inquiry could be applied and intended to be concreted in the teaching guid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approach Neo-Confucianism, the academic background of Toegye·Songam's poetry, from a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The reason was that the two disciplines sought the principle of universal Li(理) and proven knowledge and required the subject's self-discipline and self-critical efforts in the process. As such,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sciplines identified as a result of interdisciplinary inquiry was that the conscious intentionality of phenomenology captures the worldview of Li-yi-fen-shu(理一分殊) of Neo-Confucianism through phenomenological reduction. The Li-yi-fen-shu captured at this time, in turn, becomes the subject's moral and practical ought and it draws the harmony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Therefor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results of this review were applied to analyze the value-oriented characteristics implied by the aesthetics of Toegye·Songam's poetry.

Chapter Ⅱ Natural Beauty and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in Toegye·Songam's Sino-Korean Poetry(漢詩) showed that the aesthetic inspiration of a poetic speaker is described when the consciousness intentionality captured and composed the external and internal beauty of the nature. Also it is surfaced too when the principle of Li-yi-fen-shu is reasonably and emotionally satisfied. In other words, the expression of the aesthetic inspiration of the poetic speaker who realized Li-yi-fen-shu takes the aspect of pursuing Bonyeonjiseong(本然之性). Specifically, it causes the difference in the topic, aesthetics, and the poetic state by orienting 'Gambalyungtong(感發融通)' in Toegye's poetry and 'Gambalheungtan(感發興嘆)' in Songam's poetry.

Next, in chapter Ⅲ Natural Beauty and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in Toegye·Songam's sijo(時調), the unique poetic state of「Dosansibigok」and「Hangeosippalgok」were confirmed by phenomenologically identifying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poetic speaker trying to embody Li-yi-fen-shu. Specifically, the poetic state is completed through the organic perspective on nature in「Dosansibigok(陶山十二曲)」, and establishment of self-awareness in「Hangeosippalgok(閑居十八曲)」. Also the will of realization of the poetic speaker for this is embodied by the practice of a moral principle(道) through Sansueungeo(山水隱居).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poetic state and the value-oriented aesthetics came to pursue the understanding universal Li and the state of realizing and completing oneself to the maximum in it.

Based on the reflection on life and human beings, which are literary topics, chapter IV Self-realistic Value Orientation and Literary Education of Toegye·Songam's Poetry discussed the learning of「Dosansibigok」and「Hangeosippalgok」. In this chapter the teaching model and plan was devised by using a philosophical community of inquiry and it consisted of a total of three sessions. The fact that literature takes life and human beings as topic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quires learners' philosophical thought about it, and the result of the thinking can be expanded through a philosophical community of inquiry. This not only reflects the current educational paradigm of attempting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ut also conforms to the purpose of the current Korean curriculum focusing on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goal of discovering the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as meaningful and vital wisdom in the present as well as ought as a historical product of the classic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oegye·Songam's poetry lies in the learning of self-realistic value through self control and self-discipline pursued by Neo-Confucianism and phenomenology and this value is reflected as unique aesthetics and poetic stat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